소년단

1962.10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동시) 인민 주권 만세

주 태동

북을 치자 둥둥.
아침 해'발 비껴 온다.
소년단 우리들의 어린 가슴에도

인민 주권 반석으로 다진
선거 승리의 자랑을 가득 안고.
우리 주권 만세를 높이 부른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누나들이.
한 표, 한 표에 충성을 고이며
선거한 인민의 대표.

소년단원 동무들아!
우리의 어린 가슴의 충성도
모두고 합치고 또 합치여
영광을 드리자, 축하를 드리자.

굳게굳게 다져진
고마운 주권을 노래 부르자.
승리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김 일성 원수 만세!》를
소리 높이 부르자.

사랑하는 온 조국땅 우에
기쁨의 웃음이 반짝 반짝
제강소의 쇠'물 폭포.
비단필 쏟아지는 직포기에

갖 창문 단 새 집들에
승리의 노래도 넘실넘실……

아, 붉은 돛이 둥둥 넘어 오는
저 수평선 만선기에도
꿀 냄새 풍기는 과수원
빨간 사과 알 하나에도
행복의 웃음 꽃은 떨기 떨기

아 얼마나 은혜 깊은 주권이냐.
아동 궁전 층층 높은 창문에.
아동 공원 한 송이 꽃과 나무
야영소의 맛 난 식탁에도
뜨거운 사랑 끝없이 넘친다.

거리마다 마을 마다 학교
누구나 배우는 행복을 안고
철을 따라 입혀 주는 학생복
주름'살이 질세라 꿰질세라
좋은 천도 알뜰히 누벼 주는
그 은혜, 그 사랑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조국 앞에
소년단원 우리들은 축복을 드린다.
인민 주권 받들고
천년 만년 살아 갈
우리들의 뜨거운 맹세 쏟아 바친다.

1962년 10월

《소년단》 1962년 10호 내용

의란구의 아동단원

박 성우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김 일성 원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아동단원들은 혁명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띠 속, 팽이채 속, 옷고름 속 등에 유격대의 비밀 련락 쪽지를 감추어 나르기도 하고,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마을도 지키고, 간첩놈들도 발견해 내군 했습니다. 높은 혁명 규률에 의하여 움직인 아동단원들은 어떤 어려운 혁명 임무가 맡겨져도 빛나게 수행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리 국권 동무도 바로 그러한 아동단원이였습니다.

1932년 12월 초에 연길현 해란구에서 활동하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왕우구 유격 근거지로 이동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해란구 유격구에 대한 원쑤놈들의 발악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왜놈들은 《토벌》을 한다고 해란구에 미친 개처럼 달려 들어 갖은 만행을 다 하였습니다. 놈들은 매일 5~6 차씩 마을을 습격하고 집들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런 데다가 《장질부사》까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앓아 누웠습니다.

이리하여 당에서는 왕우구 유격 근거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해란구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대부분은 이미 왕우구를 향하여 떠나고 나와 몇몇 간부들만 남아 뒷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남아 있는 100 여명의 인민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환자들을 업고, 데리고 험한 산'길을 에돌아 가자니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어서야 해란구에서 70 리 가까이 되는 의란구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의란구 구당위를 만나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 새 밤은 퍽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란구 남양평 뒤'산 수림 속에서 하루'밤 휴식하게 되였습니다. 이 때 어떻게 알았는지 리 국권 동무를 비롯한 의란구 아동단원들이 우리를 찾아 왔습니다.

《아저씨들은 쉬세요. 우리가 보초를 서겠어요.》

유격대원들이 보초를 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권이가 앞에 나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구당위 동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동단원들은 회의를 열고 하루'밤 우리들의 보초를 서기로 결정하고 온 것이였습니다. 행군에 지쳤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초소를 맡기고 편안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겠어요. 아동단의 위임이예요.》 하고 고집을 쓰는 국권이는 암만 말려도 소용 없었습니다.

끝내 국권이는 연길 폭탄 하나를 안고 보초를 서게 되였습니다. 수림 속에서는 이름모를 산짐승들이 설레이며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가 윙윙 울며 날아와 어린 국권이의 온 몸에 들씌우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권이는 무서움도 추위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동단의 위임으로 혁명 초소를 지킨다는 영예와 자랑으로 가슴이 들먹일 뿐이였습니다.

(나의 뒤에는 혁명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우는 유격대원 아저씨들이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들은 나에게 혁명 초소를 맡겼다. 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 국권이는 금시에 유격대원이 된듯 싶었습니다.

어둠을 꿰뚫고 사방을 살피는 국권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는 지나 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며 흔들리는 나무 잎새도 거저 보지 않았습니다.

간악한 원쑤놈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기여 들어 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여서 조금도 경각성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새 훤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려 울부짖었습니다. 온 몸이 얼어 들고 발이 더욱 시려 났습니다.

국권이는 참다 못해 불을 피우려 싸리나무 가지를 모으며 사방을 다시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산중턱을 헤가르며 움직움직하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게 뭘가?) 국권이는 긁어 모은 싸리나무 가지를 안은 채 움푹한 구덩이에 엎디여 침착하게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것은 60 명 가량 되는 남양평 《자위단》 놈들이였습니다. 벌써 선발대놈들은 보초선 50메터 가까이에까지 기여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곰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40 메터… 30 메터… 원쑤놈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 왔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빨리 알려야 하겠는데 웅덩이에서 뛰여 나오면 원쑤놈들이 인차 알아 차리고 총질을 할 것이 였습니다. 이럴 때 국권이에게 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쑤놈들을 코 앞에 두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국권이의 마음은 안타까왔습니다.

《아동단의 규률을 지키라!》

늘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동 국장의 목소리가 국권이의 귀'전에 울렸습니다.

(그렇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단의 위임을 해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순간 그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국권이는 모아 놓은 싸리나무 가지 밑에 연길폭탄을 묻고 불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알몸으로 성큼성큼 뛰여 가는 국권이는 마치 노루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 나는 수림 속에서 잠든 사람들을 하나 하나 돌보고 있었는데

《아저씨!》 하고 등'뒤에서 애'된 목소리가 나기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옷을 홀랑 벗은 국권이가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뛰여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로 원쑤놈들이 밀려 와요!》 국권이는 이 말 한 마디를 전하고는 어디론가 또 쏜살 같이 뛰여 가는 것이였습니다.

《전투 준비!》 나의 나지막한 구령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모두 전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콰ー》 요란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초선 쪽을 내려다 보니 《선발대》로 올라오던 《자위단》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쓸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권이가 불무지에 묻어 놓은 연길폭탄이 터지면서 원쑤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준 것이였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뒤에서 어정어정 기여 오던 놈들도 겁에 질려 까투리 새끼처럼 대가리를 땅에다 틀어 박는 것이였습니다.

《자위단》 단장놈이 비실비실 뒤'걸음치는 놈들에게 총뿌리를 대며 고래고래 욕지걸이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그 때 수 많은 환자를 데리고 가던 우리가 적과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불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적이 기여 오르기만 하면 사격 구령을 내리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건넌 편 산에서

어깨 동무 세 동무 삐오넬 동무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아!
………

삐오넬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란구 아동단원들이 붉은 기를 내저으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국권이의 련락을 받고 적들이 우리 유격대원들이 머물러 있는 수림 속으로 기여 들지 못하게 자기들 쪽으로 유도한 것이였습니다.

《저놈들이다!》 노래 소리를 들은 적들은 그쪽으로 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은 마치 무질서한 까마귀떼 같았습니다.

놈들이 건넌편 산중턱에까지 거의 게바라 올랐을 때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바위'돌을 굴렸습니다.

원쑤놈들은 폭탄처럼 쏟아져 내려 오는 바위'돌에 얻어 맞아 딩굴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다. 그러면서도 아득빠득 아동단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꼭대기를 향해 기여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원쑤놈들을 겨누고 있던 우리 유격대원들은 원쑤들의 뒤'통수에다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아동단원들은 더욱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며 만세를 웨치며 연신 돌을 굴렸습니다. 원쑤놈들은 독안에 든 쥐새끼처럼 갈팡질팡했습니다. 원쑤놈들은 총탄에 맞고 돌폭탄에 맞아 너저분하게 쓰러졌습니다. 살아 남은 몇 놈은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아동단원 리 국권 동무는 이렇게 아동단의 위임, 혁명의 위임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어렵고 위험에 부닻친 순간 리 국권 동무가 어떻게 그런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가슴에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는 것과 아동단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위임이라면 목숨도 서슴 없이 바치고 수행할 그런 강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 우리는 리 국권 동무를 비롯한 아동단원들의 지혜롭고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아무런 희생도 없이 원쑤들을 물리치고 왕우구로! 왕우구로! 새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수령님의 사진을 우러러 보며

리 효운

대동강 향한 우리 집 창문 우'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 밑 긴 의자에 앉으
셔서 소년 소녀들과 얘기하시는
수령님 모습—

온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 담뿍이
손질하며 말씀하시는 원수님 앞
에
소년단원들 단정히 서 있습니다.
무슨 재미 있는 얘기를 나누실
가요?
·········

……새로 지은 교복이 마음에 드
는가
공부를 잘 하며, 요새 학교에선
뭘 하느냐
소년단 생활은 어떠하며 자미 있
는가,
부모님은 뭘 하며 모두들 건강
하냐……

수령님의 웅굴고 부드러운 목소
리
내 심장에 스며 드는 나날
나는 창'가에 향한 책상 머리
수령님 앞에서 날마다 생활을 총
화합니다.

내가 쓰는 한 자루 연필에도
한 권의 교과서와 학습장에도
맵씨 있고 아름다운 교복에도
내가 겪는 모든 생활 속에
당과 수령님의 크나큰 뜻이
봄철의 해'별 같이 스며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온 심장과 마음으로
느끼고 간직하고 노래하며
내 손과 발과 머리와 심장이
잇닿은 모든 일에 옮기고 있습니
다.

조국의 넓은 산과 들 그 어데 가
나 당을 노래하고 수령님을 우러
러
모든 사람들이 튼튼히 뭉치여
여섯 개 괴봉들에 날아 가고 있
습니다.
내가 태여나 자라난 해와 달에

전설 아닌 기적이 무지개로 피
여나고
당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일하고 싸우는
로동당원들이 우리 앞장에 섰습
니다.

내가 어리다구요?
나는 모범 소년단원이예요.
나는 로동당의 귀여운 아들이예요.
그리고 최우등생이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항일 빨찌산을 목숨으로 도운 아
동단원들
미국놈의 가슴팍에 불벼락을 안긴
그 소년 단원들도 나의 동갑들
이였지요!

나도 크면 민청원이 되구
그 다음엔 로동당원이 꼭 될래요!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뭘 해도
선렬들의 모범을 배우고 실천해요
저 창 밖에 뭇별들과 경쟁하듯
강물에 불빛이 반짝입니다.
수 많은 우리 동무들의 눈'동자
처럼
밝은 미래를 향하여 빛나고 있
습니다.
수령님의 사진을 우러러 보며
나는 하루 생활을 곰곰히 도리
켜 봅니다.
당원으로 되는 길, 원수님의 참
된 전사로 되는 길
이 길에서 나는 오늘 모든 일 잘
했는가
학습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며
매일 아침 천리마 시대의 태양
을 맞을 것인가!

1962. 8

새 집들이 하는 날

글 손 병도
촬영 리 종록

1962년 7월 8일 평남도 순안군 대양 중학교 단 6 분단 최 기복 동무네 집에서는 새집들이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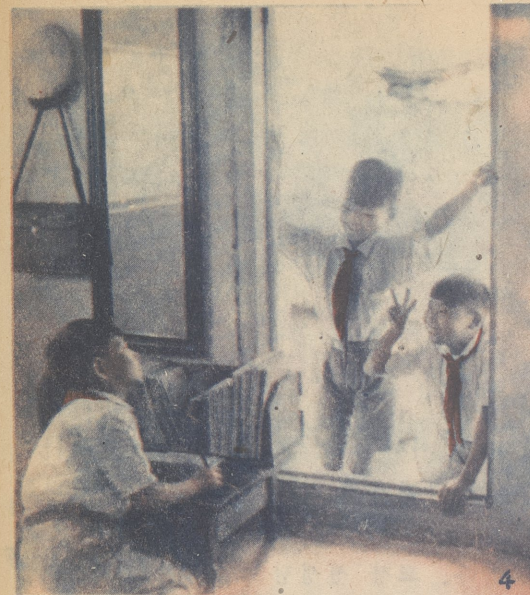
고래' 등 같은 농촌 문화 주택으로 새집들이 하는 기복이의 마음은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듯이 기뻤답니다.

1) 벽돌로 키 낮으막하게 울타리를 두룬 넓은 뜰안에 부엌이 달린 큼직한 방 두 칸과 창고며 가축사까지 산뜻이 마련된 집을 돌아 보는 기복이네 온 가족들은 기뻐서 어절 줄을 몰라 합니다.

(2) 《어머니 초상화는 제가 걸겠어요.》

기복이는 새 사진틀에 넣은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아래'방에 모시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카도 걸었어요.

(3) 어머니, 저는 꽃밭을 가꾸겠어요.》

하고 기복이는 뜰안에 나와 벽돌로 맵씨 있게 울타리를 만들고 백일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꽃을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떠다 옮기면서 문화 주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에 떠다 심을 과실 나무 구멩이도 팠어요.

(4) 책상과 책꽂지가 놓여 있는 기복이의 학습실을 보세요.

일과표를 써 붙이고 염화비닐 가방도 걸어 놓았습니다. 크고 길다란 거울도 걸어 놓았습니다.

야! 네방이 멋있구나.

(5) 기복이가 사랑하는 토끼도 함께 새집에 들었습니다. 분만실까지 잘 만들어진 새 토끼사에서 기복이는 영양' 가 많은 토끼풀들을 주고 있어요. 기복이는 할머니에게 토끼털 등거리를 만들어 드리겠대요.

(6) 《나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하면서 할머니는 집에서 돼지 두 마리, 염소 한 마리, 닭 열 다섯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7) 새집들이 한 날 밤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날의 비참했던 살림 살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무너져 가는 오막살이 집마저 제대로 못 쓰고 지주놈의 빚값에 빼앗기군 하던 왜놈 때에 이런 집에서 살려니 꿈엔들 생각이나 해 봤겠니. 그런데 이런 문화 주택을 받고 보니 정말 꿈만같다. 이게 다 당과 수상님의 은덕이다. 이 집을 더 알뜰하게 꾸리고 일도 더 잘해야겠다.

기복이는 공부를 더 잘하구. 그래야 수상님의 은덕에 보답하지.》

기복이는 이날 밤 기어히 할머니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마음 다졌지요. 그리고 금년에 10만 동 농촌 문화 주택이 일어 서고 1967년까지 60만 동이나 이런 집들이 건설되여 우리 나라 모든 소년단원들이 오늘 자기처럼 기뻐할 것을 눈앞에 선히 그려 보면서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무의 참된 벗이 되여

평북 의주군 수진 중학교 단원 성희 동무는 자기보다 아래'반이며, 나이도 한 살 아래인 걷지 못하는 동무를 4 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최우등생으로 도왔다.

성희가 3 학년에 진급한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이였다. 성희는 집으로 돌아가다 검은 산 고개'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에서 낯 모를 동무를 만났다. 그 애는 학교에 갔다 오는 성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맥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저 애가 혹시 학교에 못 다니지는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성희는 집으로 갈 생각은 잊고 그 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희는 그 애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인 열 살이며 이름은 홍 선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사하셨고 어머니 마저 계시지 않아 늙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성희가 놀란 것은 선자가 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그 날 밤 성희는 오래 오래 잠 들지 못하였다. 성희는 아침에 조합에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자를 업고 학교에 다닐 것을 이야기 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해 주셨다. 성희는 그 날 교장 선생님께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 했다. 교장 선생님도 역시 기특한 생각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였다.

다음 날 드디여 선자는 성희의 등에 업혀 인민반 1 학년에 입학하였다.

성희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참아 가며 4 년간 단 하루의 결석, 지각, 조퇴조차 없이 꾸준히 선자를 업고 학교에 다녔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장마통에 개울물이 불를 대로 불었다. 성희는 선자를 업고 물을 건느다가 그만 미끄러운 돌을 헛디디여 물속에 엎어졌다. 그는 물속에 빠져서도 자신보다 등에 업혔던 선자를 먼저 생각했다. 성희는 물속에 엎어져 꿀깍꿀깍 물을 마시면서도 선자를 떠 이고 일어섰다.

겨우 선자를 부축하고 언덕 우로 올라온 성희는 자기의 불찰로 하여 선자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였다고 마음 속으로 꾸짖었다.

성희가 제일 걱정되는 일은 선자의 학습 성적이 낮은 것이였다. 성희는 매일 선자의 집에 찾아 가서 그의 학습을 돕기도 하였고 선자를 자가 집으로 업고 와서 밤 깊도록 배워 주고는 다시 데려다 주기도 했다.

비 오는 어느 날이였다. 성희가 선자를 업고 집에 돌아와 보니 조합에 나가신 그의 어머니는 아직 돌아 오시지 않은 때였다. 성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아궁이의 불을 떠 화로에 담은 성희는 선자의 옷부터 먼저 말리였다.

《언니 옷부터 먼저 말리워요》.

선자는 여간 미안해 하지 않았다.

《아니야! 네 옷부터 먼저 말리워야지》.

성희는 선자를 화로 곁에 끌어 당겼다. 옷이 마른 후 성희는 밥이 될 때까지 선자와 부엌 바닥에 마주 앉아 나무 가지로 《산'가치》를 만들어 산수 문제를 가르쳤다.

성희의 노력은 열매를 맺았다. 선자는 처음에는 보통, 그 다음에는 우등, 최우등생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군에서 열리는 산수 경연 대회에 참가한 선자는 훌륭한 성적을 쟁취하여 군 민청 위원장의 표창까지 받았다.

선자가 2 학년에 진급한 지 며칠 되지 않던 어느 날이였다. 저녁 밥을 먹고 난 성희는 그날도 자기를 기다릴 선자를 그리며 늦을새라 고개'길을 넘어 선자네 집으로 달려 갔다. 매일 버릇처럼 대문 밖에 나와 성희를 기다리던 선자가 오늘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인가 쓰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고 있었다.

선자를 깨울 새라 곁에 간 성희는 그의 학습장에 쓴 글을 무심코 읽어 보았다.

《…나도 소년단원이 될 수 없을가? 아마도 될 수 없을거야, 나는 다른 애들처럼 분단기 앞에 걸어 나가 입단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도 소년단원이 되고 싶다. 정말 금희의 붉은 넥타이가 부럽다…》.

학습장에서 눈을 뗀 성희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붉어졌고 가슴은 큰 죄라도 지은 사람 같았다. (난 아직도 선자의 아픔을 다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성희는 다음 날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다.

《선생님 선자도 소년단에 들 수 있습니까?》.

《노력만 하면 들 수 있구 말구…》.

지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성희는 그 길로 선자에게 달려 갔다. 선자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날 밤 성희는 지난 날 명절에 아버지

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자기 수첩에다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써가지고 다시 선자를 찾아 갔다.

밤은 깊어 갔으나 성희나 선자는 잠들 줄 몰랐다. 그 후 성희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학습하기 전부터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드디어 1960년 6. 6절이 돌아 왔다. 성희는 선자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해 두었던 넥타이와 나비형 리봉을 종이에 싸가지고 선자를 업고 소년단 입단식에 참가하였다. 입단 맹세를 하는 여러 동무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기쁨이 물'결쳤다. 성희의 등뒤에서는 맑고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동무들과 함께 하는 선자의 입단 맹세였다. 성희의 목은 꽉 메였고 눈'시울은 뜨거워났다. 지도원 선생님이 성희가 준비한 붉은 넥타이를 선자에게 매여 줄 때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느새 여기 저기에 퍼졌다. 선자의 이야기를 알게 된 평북도 중앙 병원에서는 선자를 고쳐 주겠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를 데리러 왔다. 선자는 지금 평북도 중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퍼그나 걸게까지 되였다.

성희는 선자와 어깨 나란이 학교에 다닐 그 날을 그리며 선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 ×

이렇듯 4 년을 하루와 같이 동무의 참된 벗이 되여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 준 원 성희 동무에게 1962년 8월 공화국 내각은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수여하였다.

6년 최우등생으로

함흥시 반룡 구역 서흥 중학교 6 분단 김 순애 동무는 하루의 지각, 조퇴, 결석도 없이 6 년 간을 최우등하였다.

순애는 항상 수업 시간에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이 학습장에 필기를 하라고 할 때에만 놓았던 철필을 든다. 집에 돌아 오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배운 지식을 넓힌다. 순애가 금년에 읽은 책만 하여도 벌써 아흔일곱 책이나 된다.

순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날 배운 것은 꼭 그 날로 관찰,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해 온지 6 년이 된다.

어느 날 순애는 식물 시간에 식물의 동화 작용을 배웠다. 집에 돌아 온 순애는 두 개의 화분에 란초와 분꽃을 심었다. 분꽃은 해'빛이 잘 들지 않는 방 구석에 놓았고 란초는 창'가에 두었다. 그리고 란초는 분꽃보다 비료도 적게 주었다.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란초 잎은 태양의 빛을 받아 동화 작용이 활발하여 푸르렀다. 그러나 분꽃은 키만 크게 자라고 잎은 누르스럼하면서도 하얗게 보였다.

(엽록소는 푸른 색이 아닌가? 태양 빛을 받지 못한 분꽃은 왜 누르스럼한 색소를 가졌을가? 혹시 식물의 잎들에는 누르스럼한 색소도 있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한 순애는 란초 잎과 분꽃나무 잎을 뜯어 제각기 다른 유리 그릇에 놓고 알콜을 부어 넣었다. 얼마 후 란초 잎이 든 그릇에 부어 넣은 알콜은 록색으로 변했으나 분꽃 나무 잎이 든 그릇에 부은 알콜은 록색은 거의 없고 모두 누런 색으로 되였다. 순애는 자기가 실험하고 관찰한 것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순애의 관찰과 실험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휘발유를 내 주면서 재미 있는 실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다.

순애는 선생님의 말씀 대로 휘발유를 두 그릇에 고루 쏟아 넣었다. 두 그릇에서는 알콜과 휘발유가 서로 갈라졌다. 우에 뜬 것은 휘발유였는데 록색을 띄였고 아래 층은 누런 색을 띈 알콜이였다.

이와 같은 관찰과 실험으로 순애는 엽록소에는 록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런 색도 약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냈다. 선생님은 그 누런 색이 진한 록색 때문에 자기 색소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처럼 그는 실험과 관찰로서 자기의 지식을 넓혀 가며 익혀 가고 있다.

순애는 학습에만 모범인 것이 아니라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서도 모범이다. 그는 작년에 성천강'가에서 놀던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생명이 위급하게 되였을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여 들어 어린 동생들을 구원했다.

터진 둑을 몸으로 막은 선옥 동무

함북 김책시 청학 중학교 단 제 21 분단 위원장 김 선옥 동무는 6년 동안 최우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단 사업을 잘 하여 46명의 분단 동무들을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옥 동무가 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작년 8월이였습니다. 사흘째 내린 비에 한천천의 물은 몹씨 불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선옥이와 영옥이가 동뚝 길에 잡아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걷다가 보니 둑 한 쪽이 물'살에 패워 들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금시에 둑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옥이와 영옥이는 그 길로 이웃 마을에 뛰여가 삽을 빌려 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떼'장을 떠다 흙이 드러난 둑 중턱에 씌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물은 낮보다 더 불어 났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난 선옥이는 자기들이 손질해 놓고 온 동'뚝이 근심되였습니다. (아까 그 동'뚝이 어떻게 되였을가?)

이런 생각을 한 선옥이는 삽을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옥이가 동'둑까지 다달았을 때였습니다.

《앗!》외마디 소리를 지른 선옥이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막자.) 이렇게 생각한 선옥이는 터진 둑에 몸을 들여 댔습니다. 그러나 새찬 물'결은 그를 떠밀어 버리군하였습니다. 선옥이는 용기를 내여 다시 터진 둑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몇분이 지난 뒤 비'바람 속에 선옥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영옥이였습니다.

선옥이네 집에 공부하려 갔던 영옥이는 선옥이가 삽을 쥐고 동'둑에 나갔다는 선옥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 온 것이였습니다.

선옥이와 영옥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터진 둑을 막으려 했으나 벌써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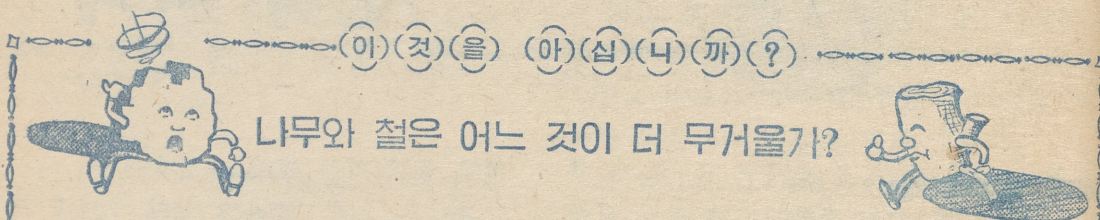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두 팔을 벌려 허리에 꽉 끼고 있는 힘을 다해 두 발로 버티더였습니다

흙탕물이 얼굴을 들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감탕물을 꿀꺽 먹군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밀려 드는 물과 싸우고 있을 때 마침 마을 어른들이 달려 왔습니다. 동'둑은 구원되고 논밭이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일한 선옥 동무는 이번에 영예롭게도 공화국 내각으로부터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나무와 철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울가?

나무 한 톤과 철 한 톤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만일 누가 《나무 한 톤이 더 무겁지요.》라고 대답하면 웃음을 터뜨릴지 모르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대답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알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물체들이 공기 중에서 잃는 무게는 그 물체가 밀어 낸 공기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와 철도 공기 중에서 일부분의 무게를 잃는 것입니다.

철과 나무의 정확한 무게를 구하자면 반드시 잃은 무게를 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무게는 1 톤에 그 나무와 같은 체적의 공기 무게를 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1 톤이 차지하는 체적은 철 1 톤이 차지하는 체적보다 큰 것입니다. (철의 15 배)

철 1 톤은 약 8 분의 $1m^3$의 체적을 차지하고 나무 1 톤은 $2m^3$의 체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두 물체가 밀어 낸 공기의 차는 약 2•5 Kg 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1 톤의 무게는 정확히 말하면 철 1 톤의 무게보다 좀 큰 것입니다.

30년 전의 학습장

—강선 제강소 종형 직장
림 윤식 로력 영웅에 대한 이야기—

그림 오 영복

본사 기자 최 죽산

강선 제강소 종형 직장에서 일하는 림 윤식 영웅 안저씨에게는 지금도 30년 전의 학습장 하나가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이 학습장에는 영웅 아저씨의 피 눈물 겨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지주 로 승희의 땅을 소작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물지 못한 빚값으로 지주집 머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아저씨의 나이는 겨우 세 살이였다.

그후 아저씨는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학교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지주집 아이들이나 있는 집 아이들이 고운 옷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면 아저씨는 헌 누더기를 걸친 채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 저런 아이들은 놀고도 이밥 먹고 고운 옷 입고 학교에 가는데 나는 이렇게 남의 집 나무만 해다 주어야 할가?)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할수록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아저씨가 열살 때 일이다. 하루는 소꼴을 베여 가지고 오다 쉴 참에 길'가에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서 배운 글'자(수'자)를 땅에 써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아래'마을에 놀려 갔다 오던 지주집 아들이 이걸 보게 되였다.

《이 새끼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해》.

그는 다짜고짜로 땅에 써 놓은 글을 발로 비벼 놓는 것이였다.

아저씨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격분해 일어선 아저씨는 대번에 그놈의 멱살을 잡아 땅에 박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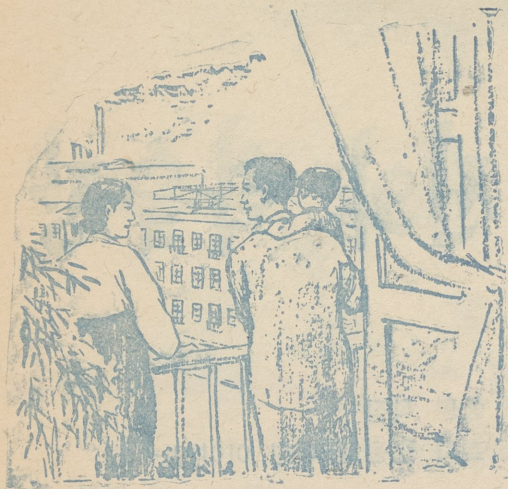
이 일로 하여 아저씨는 지주놈에게 모진 매를 맞았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을 아저씨는 쓰지 않고 귀중히 저사해 두었다. 그 돈으로 학습장과 연필을 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글을 배우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저씨는 지주놈의 심부름으로 해주 시내에 갔다가 학습장과 연필을 사가지고 기쁨에 넘쳐 돌아 왔다. 저녁에 어머니는 아저씨가 자습으로 공부하겠다는데 너무 기뻐서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문창지에 양초까지 발라서 학습장 뚜껑에 덧씌워 주셨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이웃집 김 성호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저씨의 이름 석자까지 적어다가 주셨다.

처음으로 학습장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제 손으로 학습장에 글을 써 보는 기쁨으로 하여 아저씨는 밤 가는 줄을 몰랐다.

《윤식아…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다가 지주놈이 오면 어쩌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아저씨가 기름'불을 끄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가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가까와 오는 것이였다.《에헴!》하고 헛기침 소리가 나기 바쁘게 벌써 문이 열리더니 지주놈이 나타났다. 《아니 이놈의 집에서는 기름'불 아낄 줄도 모르나! 앙》. 아저씨는 급히 잠'자리로 깔아 놓은 가마니 밑에 학습장을 집어 넣었다. 그런데 미처 감추지 못한 연필을 발견한 지주놈은《머슴놈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하고 달려 들어 연필을 빼앗더니 뚱턱뚱턱 꺾어서 내 동댕이치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사정 없이 아저씨의 두 귀를 끌어 당기며 불을 갈기는 것이였다.

《나리님 어린 것이…》 지주놈에게 매달려 빌던 어머니도 그놈의 발'길에 채웠다. 《다시 또 글'소릴 내봐라.》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지주놈은 눈에 초롱을 달고 아저씨와 어머니를 감시하였다. 그것은 장차 아저씨가 공부를 하여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제 마음 대로 일을 부려 먹을 수 없기 때문이였고 시재 당장은 조금이라도 일을 더 부려먹자는 심'보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자랄수록 공부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왔다. 아저씨가 열 세살 나던 해 어느 날이였다.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다문 얼마라도 돈을 얻어 아들을 공부시켜 볼 작정으로 지주놈에게 찾아 들어 갔다. 《뭐 어째? 네 새끼 공부시킬 돈이 있으면 내가 발을 한 뙈기 더 사겠다. 따지도 못할 별은 쳐다 보지도 말아! 엉》.

지주는 독살스러운 눈을 부라리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아저씨네는 끝내 이놈의 집에서 쫓겨났다. 머슴에서 쫓겨 난 아저씨는 도시로 나와 여기저기 떠 돌아 다니며 고된 로동을 하였다. 뼈가 휘도록 일해도 공장주놈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나면 쌀 한 되 살돈을 못 벌어 끼니를 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아저씨는 날마다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혼자서라도 배워 보리라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아저씨는 짬짬이 왜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기계의 구조며 원리들을 학습장에 적어 넣으며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발각되여 호되게 매를 맞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옛날로 되였다.

아저씨는 지금 나라의 주인이며 공장의 주인으로서 공장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저씨의 아들 딸들도 모두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있다.

얼싸한 아빠트에서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웃음 꽃을 피우며 즐길 때마다 가끔이 학습장을 꺼내 놓고 눈물겨운 지난 날을 회상하며 오늘의 이 행복한 제도, 이 고마운 당과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이 고마운 우리 제도와 공화국의 륭성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일할 것을 다짐하군 한다.

그리하여 아저씨는 압연을 할 때 철의 온도를 1,200도까지 올리는 방법을 창안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저씨는 모두 230 여 가지의 창의 고안을 하여 공장의 기술 발전과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리하여 아저씨는 1958년 영예롭게도 로력 영웅 칭호까지 받았던 것이다.

소설

두 정찰병

김 용 권 그림 장 기 복

《차렷!》

영수는 구보로 달려 나가 야영소 지도원 선생님에게 보고했습니다.

《단 지도원 선생님, 정찰 분대는 당신의 명령대로 모였습니다. 분대장 강 영수》.

웃 옷에 허리띠를 질끈 동이고 마분지로 만든 망원경을 왼쪽 어깨로부터 엇가로 메고 앞 가슴에 《따바리》를 꽉 바쳐 들어 쥔 영수는 용감하고 대담한 정찰 분대장다왔습니다.

키는 짤다막하고 몸은 통통하지만 달리기도 잘하니 그저 그만이였습니다. 그는 지리 공부에 소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처럼 탐사대장이 되여 《원유》를 발견한다고 늘 벼르는 동무입니다.

그래 이번 군사 유희에서 청군은 영수를 정찰 분대장으로 내였습니다.

《좋소. 〈쉬엿!〉 하시요》.

《쉬엿!》.

지도원 선생님은 략도를 그린 지도를 풀밭에 펼쳐 놓고 모여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홍군이 있는 고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청군 진지에서는 약 800 메터가 됩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붉은 연필로 표식을 해 가며 설명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의 전투 과업은 홍군의 군기가 어디에 있으며 방어진은 어떻게 배치되여 있는가를 깜쪽 같이 알아 내 오는 것이였습니다.

정찰병들은 한 데 몰려 가면 발견되기 쉬우니 두 명 씩 짝패를 지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주 멋진 《전술》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군이라도 정찰병들만이 아는 《군사 비밀》입니다. 그것은 정찰병이 다섯 조로 되여 있는데 네 조는 홍군 방어 진에 들어 가지 않고 앞에서 얼렁거려 주의가 모두 그리로 쏠리게 하며 그 틈을 타서 다른 한 조가 뒤로 들어 가 홍군 군기와 진지의 배치를 알아 내 가지고 살짝 빠져 나오는 《전술》이랍니다.

정찰 분대는 이 중요한 임무를 정찰 분대장 영수와 《식물 학자》로 불리우는 남이에게 주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매 조에 략도를 한 장씩 주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이 대주신 대로 얼마쯤 가노라니 과연 넘어진 나무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골짜기로 접어 들어 산제를 거슬러 올라 갔습니다.

두 정찰병은 찔광 나무, 가시 나무 등 관목에 엉킨 사이로 기다싶이 조심조심 발을 옮기였습니다.

골짜기의 무성한 풀섶을 헤가르며 오르던 두 정찰병은 두 갈래'길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이 북쪽 골짜기로 오르라고 했지…》 하고

영수는 왼쪽 골짜기로 들어 섰습니다.

《…아니 영수야, 그 쪽이 북쪽이냐?…》

《왼 쪽이 북 쪽이 아니구 뭐야. 어서 따라 와》.

두 정찰병은 왼 쪽 골짜기를 따라 또 올라 갔습니다. 갈수록 나무들이 더 무성하고 덤불이 엉키였습니다.

《야— 멋진데!》

남이는 머루 덤불을 만나자 달라 붙었습니다.

참나무를 덮쳐 누르듯 덮힌 실한 머루 덤불을 만난 것이였습니다. 아직 익지는 않았어도 살이 오른 퍼런 머루 송이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영수도 따 먹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았으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병이란 마음에서 억제하였습니다.

《정찰병이 뭐야》.

《정찰병은 머루 안 먹나 뭐. 좀 따 먹고 가자. 시간이 넉넉한데》.

사실 시간은 넉넉하였습니다. 공격 전투는 4 시에 하기로 서로 약속되여 있으니 아직 1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안돼》.

《뭘 그래…》 남이는 영수의 성미를 아는지라 딴전을 썼습니다.

《야—참 멋지다야. 이거 학교에 떠 갔으면 좋겠네…》.

《떠다 뭘하게?》.

《포도하고 접해 보지 뭐… 그럼 주먹만한 포도알이 열릴지두 몰라》.

《체, 거저 〈접〉한다는 소리지… 하지두 못하면서…》.

영수는 동무들이 남이를 《식물 학자》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마가 뚝 나오고 큰 눈에 엉뚱한 생각은 잘 해도 하나 성공하는 게 없으니까요. 한 번은 벼나무를 만들어야겠는데 참대나무가 없다기에 영수는 집에 있는 참대나무를 심은 화분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벼와 접한다고 온통 잘라서 화분을 못 쓰게 만들어 아버지에게 야단 만났던 일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도 땅에 심은 참대가 아니고 화분에 심은 게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긴 그게 인민반 4 학년때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게 뭐가 《식물 학자》 될 자격이 있는가고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좀 따 먹자구》.

《안돼!》.

《싫으면 내 혼자 따 먹겠다》.

《안 된다는데. 명령이야! 앞으로!》.

영수는 앞으로 쑥쑥 걸어 나갔습니다. 혼자라도 갈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의 친한 동무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르거든요. 전사는 분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군사 규률》이니까요.

분대장은 정찰병답게 속보로 달렸습니다. 전투에서는 한 초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남이도 분대장을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갈수록 산림 속은 침침하고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수야. 어디루 자꾸 가니?…》.

《무섭니?》.

《무섭진 않아두…》.

겁쟁이란 말을 들을가봐 애써 무섭지 않은 척 했습니다. 영수도 아닌게 아니라 산 속 깊이 들어 갈 수록 으시시했으나 전사 앞에서 분대장은 더 용감해야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였습니다.

두 정찰병은 앞으로만 갔습니다.

계속 울창한 숲이 막아 설 뿐이였습니다. 나타나야 할 화강암에 이끼 낀 선바위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채 가지 못한 것이 아닐가 해서 또 달리다싶이 했습니다.

쑥새풀에 스친 자리는 땀이 흘러 쓰리고 아팠습니다.

《영수야 길을 잘 못 든 게 아니야?》.

《모르지 뭐》

《도로 내려 가자구…》.

영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내려 가자구. 그러다 길을 잃어 먹으면 어떻게 하니…》.

《정찰은 어떻게 하구?》.

정찰 분대장이 어떻게 자그마한 난관에 물러 설 수 있겠습니까. 홍군 진지가 어디 있는지 똑바로 찾아 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길을 잃었다구 못 찾을 게 뭐야. 올라가면 산 꼭대기가 될 게 아니야. 지도에도 산 꼭대기에 동그라미를 쳤거든》.

《그러다 아주 길을 잃을라구》.

《잃긴 왜 잃어》.

《내려 가자》.

《비겁하게 넌 겁쟁이야!》.

영수는 증을 냈습니다.

《비겁하다구? 뭐가 비겁해?》

《비겁하지 않구. 무서우니까 내려 가자는 게!》.

《나두 올라 가라면 못 오를 줄 아니?》.

이번에는 남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장 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정찰병은 씩씩거리며 나무 뿌리를 잡고 벼랑을 톱아 올랐습니다. 미끄러지면 또 오르고 정말 정찰병들처럼 산으로 올랐습니다.

한 등성이를 넘고 머루 덩굴, 다래 덩굴이 엉킨 골짜기를 빠져 나왔습니다.《버석》 소리에 영수와 남이는 흠칫 놀라 멈추어 섰습니다.

《뭐야?》.

《쉿—》하고 영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영수는 남이의 귀에 대고 소근거렸습니다.

《들리지 않니?》

《뭣일가?》

《발'자국 소리야》.

《발'자국 소리?》.

남이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 오는 것이였습니다.

두 정찰병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남이야, 됐어! 홍군이야!》.

영수는 남이를 돌아 보며 눈을 꿈벅하였습니다. 남이의 큰 눈도 빛났습니다. 두 정찰병의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분대장답게 어떻게 묘하게 감시병을 속여 넘기고 군기 있는 곳을 찾아낼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칡덤불 속에서 나온 것은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오던 걸음을 멈추고 두 귀를 쫑긋거리였습니다. 무슨 감촉을 한 듯 겁 많은 두 눈을 뒤룩거리더니 급기야 껑충 덤불 사이를 누비며 도망 치는 것이였습니다.

급해 맞은 분대장은 소리를 쳤습니다.

《쏴라! 쏴!… 아니 너 뭘하니, 노루가 뛰는데…》.

《뭘로 쏘란 말이가?》.

《총으로 쏘지…》.

《이게 진짜 총이가? 하하하.》 남이가 웃어 대였습니다.

《진짜 총이문 그 놈 잡았을 걸》.

영수는 다 잡았다 놓아 준 듯이 분했습니다.

《진짜 총이 아니라두 잡을 번 했어》.

《어떻게?》.

《달아 나지 않구 이리로 왔으면 내가 뒤'다리를 붙잡고 네가 따바리로 까면 될게 아니가》.

《그렇구나!… 왜 뛰였을가?》.

《뛸 줄 알았어》.

《왜?》.

《넌 앞에만 위장했으니까 등이 보였단 말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노루가 듣는데 어떻게 말하니?》.

《체, 참 넌…》

두 정찰병은 아수한 대로 어쩌는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찰병들은 교훈을 찾았습니다.

정찰병들은 칡덤불로 몸을 위장했습니다. 서로 꽂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엎디여 보았습니다. 이제는 좀해서 발견될상 싶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은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입 안에서는 겨'불 냄새까지 나는 듯 했습니다.

조급해진 정찰병들은 쉬지 않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다리는 뻣뻣하여지고 노근했으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의 승패가 자기들에게 달렸다는 것을 아는 이상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홍군은 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 오른 두 정찰병은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이젠 자기들 때문에 청군이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울고 싶었습니다. 동무들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간단 말인가. 돌아 갈 일도 막막하였습니다.

해는 어느 쯤에 걸렸는지 구름에 덮힌 흐뎟한 하늘이 정찰병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봐야 자기들이 어디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정찰병은 맥 없이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홍군을 찾느니 보다 돌아 갈 일이 문제였습니다. 짐작으로 보아도 군사 유희는 이미 끝났을 것이요. 이제 더 홍군을 찾는 대도 쓸 데 없는 것이였습니다.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남이가 울먹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단 말이가?》.

《올라 올 때 골짜기에서 길을 잘 못 들였어》.

《지도원 선생님이 북쪽 골짜기로 가라구 하지 않았니… 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넌 왼 쪽으로 가지 않았니》.

《왼 쪽이 북 쪽이 아니가》.

《덮어 놓고 왼 쪽이 북 쪽이가?》

분대장을 원망하는 말이였습니다.

《자연 지리 교과서에두 왼 쪽이 북쪽이라고 하지 않았니.》

《해 뜨는 쪽을 보고 섰을 때 왼 쪽이 북 쪽이 아니가. 그런데 넌 덮어 놓고 왼 쪽으로 왔거든》.

《나만 왔니, 너두 오구》.

《넌 분대장이 아니가》.

《그래두 잘 못 가면 대주어야 하지 않니…》.

《나두 딱히는 몰라서… 난 그저 네가 〈탐사 대장〉이니까 믿구 따랐지뭐…》

《체, 〈식물 학자〉는 그저 따라 다니는 거가》.

저녁이 가까와 지는듯 설렁거리는 바람이 두 정찰병의 마음을 산란케 했습니다.

골짜기마다 한 자국 두 자국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기여 드는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영수는 소리를 쳐 봤습니다.

남이도 선생님을 소리쳐 찾았습니다. 대답은 산울림 뿐이였습니다.

한 번 실수로,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인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야영소로 떠나 올 때 잘 갔다 오라고 정거장에까지 나와 바래 주던 동무들이며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 올랐습니다.

기차'간에까지 올라 오시여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연 지리》나 《식물》에서 배운 지식을 다지기에는 썩 좋은 곳이니 식물 채집, 곤충 채집, 자연 관찰을 잘하고 오라시며 그래야 《글두지》 공부를 면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단 지도원 선생님의 연자하신 얼굴이 선히 눈 앞에 어렸습니다.

《선—생—님—》.

영수는 목이 메여지게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사정 없는 산울림은 《글두지》를 비웃고 흉내만 내는 것이였습니다.

《선생님—》하고 부르면 《글두지—》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두지였어! 글두지!》.

영수는 그제야 김 일성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글두지》의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장을 졸졸 따로 외와 《5점》 맞은 방위 판정법, 그 방위 판정법을 말로는 알면서도 써 먹을 줄 모르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 못이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방위 판정법을 교과서에서 배운 날, 다 따로 외왔다고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도 선생님이 하나 하나 별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데 동무들과 숨박꼭질 놀음만 하고 건성으로 듣고 만 일이 후회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모서리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남북을 가리는 법을 배웠는데 왜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덮어 놓고 왼 쪽으로 왔단 말인가.

《글두지, 글두지》, 혼자 중얼거리던 영수에게는 떠 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렵고 곤난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언젠가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이야기 해 준 그 생각이였습니다.

《남이야, 여기 와 앉아… 자연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나무 아지는 남쪽에 더 많고 무성하다고 했지?》.

《이제 남쪽을 알면 뭘하니. 여기가 어던지 모르고…》.

사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동, 서, 남, 북을 찾아 내도 지도에서 동무들이 있을 방위를 찾고 찾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야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수는 곤난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 대로 찬찬히 살피며 방위를 확정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흐렸으니 밤이 되여도 별을 볼 수 없을 것이요, 또 설사 별을 볼 수 있다 해도 말로는 북두칠성을 찾고 그 옆에 북극성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는 어느 별이 무슨 별인지 알지 못하니 별에 대한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서 있는 산정의 나무들과 바위를 잘 살펴 보았습니다. 과연 나무 아지가 적은 쪽이 있고 바위도 그 쪽에 이끼가 더 두텁게 끼였습니다. 바로 그 쪽이 북 쪽임이 틀림 없었습니다.

북 쪽은 영수네가 있는 산정 보다 좀 나지막한 봉우리들이 서로 어깨를 어기며 서 있고 그 멀리는 드높은 산이 앞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높은 산 꼭대기를 북으로 정하고 서쪽을 정하려고 내려 살피다 가느다란 연기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나지막한 둘째 봉우리와 세째 봉우리 사이에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다! 연기!》

영수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습니다.

《뭐? 연기! 어, 어디…?》

남이도 벌떡 일어 났습니다.

《저기 저 높은 산 꼭대기를 북쪽이라면 서쪽으로 내려 오다 나지막한 봉우리들이 있지?》

《응》

《거기 가느다란 연기가 오르지! 저것봐 점점 더 커진다! 서북 쪽이다! 서북쪽!》.

《그래! 그래! 우리 동무들이야!》 그들은 연기가 나는 쪽을 향해 줄다름쳐 갔다.

내려 가 보니 바로 야영소 뒤'산과 가까운 봉우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영수야!》

이들은 방금 찾아 떠났던 지도원 선생님과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글두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수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에 《혼났지?》 주위 동무들을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사다함

박 치 함

신라의 14대 왕인 진흥왕 23년 (가원 592년) 9월이였다.

조선의 남쪽 땅 한끝(오늘의 경상남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가야국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신라로 쳐 들어 왔다.

진흥왕은 급히 여러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사부 장군에게 가야국 군사를 물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겨우 열 너더댓에나 보이는 소년 하나가 왕 앞에 나타나 자기도 함께 싸움 터로 나가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화랑(신라에 특별히 조직된 청소년 조직의 한 사람)인 사다함(15세)이라는 소년이였다.

사다함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용감한 소년이였으며 나라를 몹시 사랑하는 소년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무들로부터 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는 이미 열 네 살 때부터 화랑으로서 자기 아래에 1천 여명이나 되는 많은 랑도(화랑을 중심으로 훈련받는 청소년들)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신라 화랑의 한 사람으로서 적들이 우리 나라에 쳐 들어 옴을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나가 싸우고저 하오니 저의 뜻을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사다함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동되여 그를 한참 동안 바라 보더니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사다함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몸이니 이 번만은 떨어짐이 옳겠다》고

그러나 사다함은 물러 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왕에게 말하였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어리다고만 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바이오니 어떠한 임무라도 맡겨 주시면 능히 목숨으로 감당할가 하옵니다》.

왕도 더는 그의 뜻을 막지 못하였다.

사다함의 서슬푸른 얼굴과 굽힐 줄 모르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는 벌써 신라의 소년 장군다운 씩씩한 모습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왕은 마침내 그에게 《귀당비장》이라는 벼슬을 주어 싸우려 나갈 것을 허락하였다.

사다함의 기쁨은 더 없이 컸다. 그는 나라와 인민 앞에 충성을 다할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신라 사람으로서의 영예를 지켜 침략자의 무리들을 물리침으로써 왕의 두터운 신임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다함이 싸움 터로 나가게 되자 그의 많은 랑도들이 함께 따라 떠났다. 그들은 기세도 장하게 여러 날의 행군 끝에 드디어 황산강(오늘의 락동강)을 건너 적들과 마주 진을 치고 있는 전선에 이르렀다.

사다함은 이사부 장군에게 자기의 비상한 각오를 말했다.

《힘과 지혜로 능히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니 저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부 장군은 사다함의 장한 기세에 못내 만족해 하면서 그에게 선봉장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랑도를 중심으로 3 천의 병사를 그에게 맡겼다.

사다함은 곧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사실상 선봉(앞장)에는 날래고 강한 군사들이 서야했다. 더구나 당시 신라의 형편으로는 싸움을 단숨에 속히 끝내는 전술이 요구되였었다. 그런데 신라군의 앞장에 서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봉장으로는 사다함 외에 더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사부 장군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다함에 대한 장군의 미더움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군은 마침내 반격을 시작하였다.

선봉장—사다함은 적의 형편을 샅샅이 살핀 다음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어두운 밤을 타서 감쪽 같이 적의 진지로 쳐 들어 갔다.

때 아닌 갑짝스러운 대 공격에 겁을 먹은 적들은 마쳐 손 쓸 새도 없이 뒤로 물러 났다. 그러나 적도 만만치는 않았다.

적들을 전달량이라는 큰 요새에 몰려 들어 가서 앞으로의 공격을 위해 일시 방어를 하였다. 그들은 유리한 지형에 의지하여 비오듯 화살을 퍼부었다. 세찬 싸움이 여러 날을 두고 벌어졌다.

그러나 산을 떠 일듯한 기세와 강하고 날랜 사다함 선봉군의 공격 앞에 가야군은 견디다 못해 전달량 요새를 버리고 쫓겨 가게 되였던 것이다.

이사부의 본군이 이 요새에 다달았을 때는 이미 가야국의 주력군이 수 많은 주검을 남긴 채 사다함의 선봉군에게 쫓기여 자기 나라 령토 깊이 도망치고 만 때였다. 가야국은 드디여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싸움은 신라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 싸움에서 소년 장군 사다함은 선봉장으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훌륭히 해내였다. 승리한 신라군이 기세도 드높이 서울로 돌아 오자 거리와 마을은 환영하는 인민들로 차고 넘쳤다.

왕은 몹시 기뻐하였다. 이사부 장군이 이번 싸움에서 사다함의 공이 으뜸이라고 보고하자 《장하다 과연 신라의 소년 장군이로군,》하고 왕은 만족한 빛을 얼굴에 띄우며 사다함을 높이 치하했다.

그리고 사다함에게 상으로 가야국 사람 3 백 명을 종으로 내주었다.

그러나 사다함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풀어 놓아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다. 사다함은 그들이 비록 싸움에서 졌다 하더라도 신라와 가야국이 이제는 한 나라가 된 이상 그들에게도 모두 일'자리를 주어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생각이였던 것이다.

이 소문은 잠시 동안에 온 나라 안에 퍼져 갔다. 그리하여 듣는 사람마다 사다함을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왕이 이 소문을 듣자 감탄하고 다시금 그에게 기름진 옥답을 주었다.

그러나 사다함은 그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저는 신라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였을 뿐이오니 거듭 이 같이 베푸시는 상은 분에 넘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번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사부 장군의 훌륭한 지휘 아래 수만 병력이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운 까닭인가 합니다. 논과 밭으로 말하면 이것은 농사 짓는 백성이 다 같이 고르게 가져야 할 것인즉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 함은 나라를 위해 그른 것으로 아룁니다》.

사다함의 름름한 태도에는 그의 곧고 굳은 사람됨이 뚜렷이 엿보였다.

그러나 왕도 역시 자기의 생각을 쉽사리 거두려 하지 않았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의 뜻을 저바리려 하는가, 받아 들임이 옳을가 한다》.

이리하여 사다함은 왕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알내라는 곳에 있는 아주 메마른 땅 얼마간을 청하여 받았다.

사다함은 자기의 랑도들과 더불어 그 땅을 힘껏 가꾸고 거두었다. 그리하여 땅은 마침내 옥토로 변하였다.

사다함이 알내의 못 쓸 땅을 받은 것은 자기가 이 땅을 개량함으로써 나라에 더 많은 도움을 주자는 것과 다시금 그것을 땅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다함은 이처럼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불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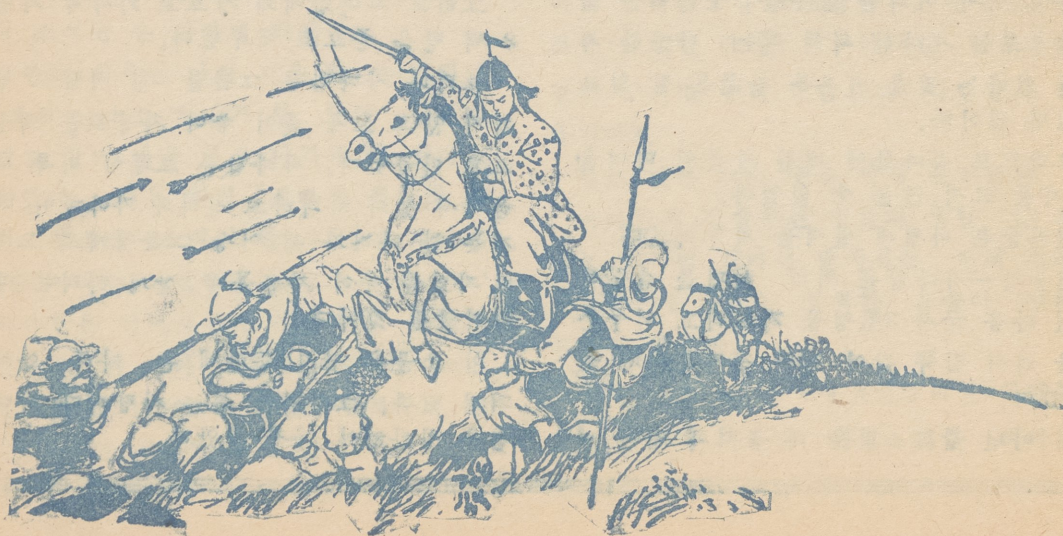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생겼다.

자기의 어릴적부터의 친구이던 무관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였던 것이다.

동무를 사랑하고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다함은 그의 병을 구원하기에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하루의 고된 일에 지쳤어도 밤에는 무관랑의 머리 맡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는 자는 것도 잊고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친우의 뜨거운 사랑도 온갖 약치료도 아무런 보람 없이 무관랑은 끝내 세상을 떠나 가고 말았다.

사다함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는 이렇게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속을 태우던 나머지 무관랑이 죽은지 이렛만에 17세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끝마쳤던 것이다.

김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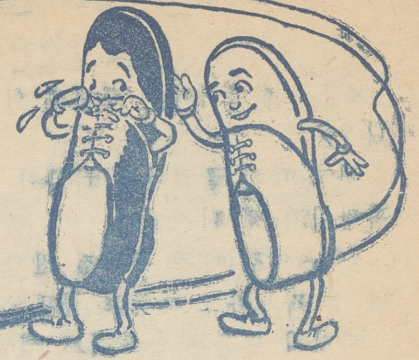



그림 남현주

나는 깜장 운동화입니다. 나는 여러 꼬마 운동화들과 함께 고향 마을(신의주 신발 공장)을 떠나 평양행 렬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들은 커다란 궤짝 안에 오손도손 사이 좋게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하는 나는 너무도 기뻐서 코'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동무들도 모두 나를 따라 코'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때에 바로 내 곁에 있던 하얀 운동화가

《얘, 넌 이름이 뭐냐?》.

하고 정답게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난 깜장이 31 문이야, 근데 넌 이름이 뭐냐?》.

하고 나는 되짚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 하양이 33 문이야. 우리 모두 같이 려행하게 돼서 참 반갑구나!》.

하고 하얀 운동화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그래! 우린 평양에 가서도 언제든지 함께 다니자꾸나. 대극장이랑 아동궁전이랑 옥류교랑두 모두 구경하구 말야》.

《그럼, 다층 아빠트랑 큰 공장이랑두 구경하고, 또 무궤도 전차도 실컷 타 보구》.

우리는 어느, 새 친한 동무가 되여 즐거운 려행을 하였지요.

우리들은 평양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승리—58 형》 화물 자동차를 바꿔 타고 평양 거리를 달렸습니다.

눈 앞에는 꿈 같은 황홀한 광경이 버러졌습니다. 량쪽 길'가에는 가로수가 우거졌고, 록지에는 잔디밭이 비단 방석처럼 깔렸고, 가지각색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높은 산'등성이처럼 길다랗게 죽죽 늘어선 큰 집들이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하늘 나라》나 《룡왕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내달리던 화물 자동차 《승리—58 형》은 어느 큰 상점 앞에 우리들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점 창고에 자리를 정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 날 하루 동안의 려행을 인상 깊게 돌이켜 생각하면서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벌써 드렁드렁 코를 골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내 꿈 나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사위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말'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눈을 썩썩 부비면서 좌우를 둘러 보았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는 정신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궤짝이 아니라 번들번들하게 장식한 유리장 속이였습니다.

내 옆에는 같이 기차를 타고 오던 동무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애, 하양이야, 대관절 여기가 어디나?》

하고 내가 물었더니 하양이 옆에 있던 파랑이가 썩 나서면서

《애, 여긴 아동 백화점 신발 매대란다. 넌 잠 자느라고 그것도 몰랐구나!》

하면서 비웃는 눈초리로 헬금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바로 《아동 백화점》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도 반가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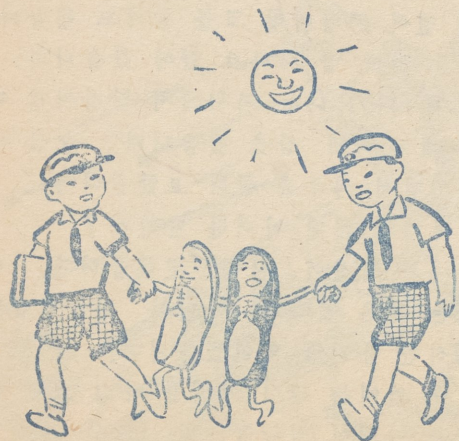
진렬장 앞에는 수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신발을 사느라고 야단이였습니다.

이럴 때에 소년단원들 한 패가 우리 진렬장 앞에 우— 몰려 왔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신발을 사러 온 모양이였습니다.

한 학생이 냉큼 하양이하고 나하고를 골라 들고

《난 33 문이 꼭 맞고 내 동생은 31 문이면 돼.》

하면서 우리 둘을 사들고 나섰습니다.

나는 여러 동무들과 함께 있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것이 퍽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양이 하고 같이 가게 되여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 하고 하양이 하고 오게 된 집은 남수와 경수라는 소년단원 형제가 있는 큰 아빠트였습니다. 우리를 사 온 학생이 바로 형인 남수였습니다.

동생 경수는 나를 신어 보고

《형! 이거 내 발에 꼭 맞아.》

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방 안에서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참 좋은 학생을 만났구나!)

하고 나는 퍽 기뻤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공원으로, 학교 운동장으로 뛰여 다닐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뜻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의 기쁜 마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그랬느냐고요?

그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수한테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면 쓸 데 없이 길'바닥에 있는 돌을 툭툭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수가 돌을 찰 때마다 나는 눈이 팽팽 돌아 갔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고 이마가 쪼각쪼각으로 깨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즈음은 이 버릇을 차츰 고쳐 갑니다마는 한 동안은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경수네 동무들이 다 같이 합장교 밑 개울에 고기 잡으려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신을 개울'가에 가지런히 벗어 놓았는데 경수만은 신을 신은 채로 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여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다른 아이들의 신발이 다를 보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볼꼴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수는 집에 돌아 와서도 나를 현관 구석에 내동댕이를 치고 저 혼자 목욕간에 가서 발을 씻었어요.

하양이는 벌써 돌아 와서 신발'장에 편안히 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현관 구석에 엎어져서 딩구는 신세가 되였습니다.

나는 정말 경수가 미웠습니다. 하도 설어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때 누가 내 곁에서 《애, 깜장이야!》 하고 정답게도 부르지 않겠어요.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보았더니 그는 바로 신'장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이였습니다.

《애, 넌 경수의 신발이구나. 참 가엾기도 해라! 이 집 경수는 본시 그런 아이란다. 비가 올 때면 늘 신발을 흙투성이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 옆구리에까지 흙칠을 해 놓는단다》.

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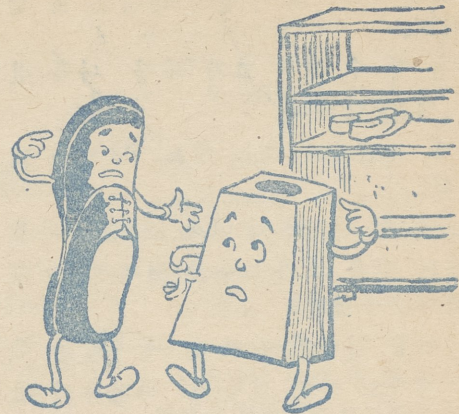
같은 형제끼리면서도 남수는 어찌나 신발을 정하게 신는지 항상 깨끗하답니다. 남수는 집에 돌아 와서는 운동화를 항상 신'장에 넣었다가 신군 한답니다. 그리고 길이 질어서 신발에 흙이 묻기라도 하면 즉시로 말끔하게 씻어서 말린답니다.

그런데 경수는 그와는 딴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쓰레기통이 하는 말을 듣고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아, 나는 아주 못 쓸 헌 신이 되고 말았구나! 남들처럼 뛰여 다니면서 놀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려행하던 동무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끗하게 차리고 다니는 하양이의 생활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경수의 형인 남수는 신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옷도 단정하게 입고 모자도 바로 쓰고 다닙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제 손으로 달아 입고, 넥타이가 구겨지면 제 손으로 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차림 차림이 언제나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경수는 그 모양이지요.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경수가 원망스러워 어두운 현관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양이가 잠을 깨고 일어 나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꾸 쓸쓸하고 섧기만 했습니다.

이왕 말을 낸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마 입에 담아 말하기조차 거북한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경수가 일어나 나와 보니 내가 현관 구석에 그냥 젖어 있지 않겠어요. 그 때야 경수는 바빠 맞아서 나를 부엌에 가져다 시퍼런 불'길이 활활 타 오르는 아궁이에 대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렇게 급히 서둘다나니 그만 나의 한 쪽 코가 타서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 때 마침 남수가

《이거 웬 고무 타는 냄새야?》

하고 부엌에 달려 와서 나를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제 구실을 다시는 못 할 번 했지요.

경수는 할 수 없이 코가 꿰진 나를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그는 어느 날과는 달랐습니다.

여느 날 같으면 신이 나서 또 돌'부리를 차며 달려 갔을 그가 그날은 어쩐지 발'걸음이 더디였습니다.

그는 가끔 힐금힐금 자기 동무들의 신발을 살피기도 하고 먼발을 바라보며 걸어 가는 품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나 않나해서 그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는 동무들이 그렇게 뽈을 차자고 해도 시무룩해서 운동장 한 구석에 가 앉고 내키지 않는 책을 꺼내 들였습니다. 내가 가만이 보느라니까 책을 보는 것 보다도 동무들이 뽈을 차는 운동장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는 가끔 꿰진 나의 코를 뚫어지게 내려다 보군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다행이였지요. 코가 꿰진 데다 뽈까지 차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였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 온 경수는 그 다름으로 방에 들어 가 바늘과 실을 들고 나오더니 나의 코를 말끔히 고쳐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경수에게 척 손을 내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밖에서 남수가 들어 오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른 한발로 나를 뒤로 밀어 놓는 것이였습니다.

아침에 말하자다 시간이 바빠 말았던 남수는 경수를 만나자 책망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뽈을 차거나 달음박질을 해서 신발이 해지면 몰라도 그렇게 흙탕칠을 해다가는 불에 태우구 그게 뭐니? 넌 도무지 물건을 아낄 줄 몰라. 학습장이나 연필두 쓰다간 버리구 적하면 새 것만 사 달라구 한다구 늘 엄마한테 꾸중을 들으면서두…선생님두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 하나에 모두 로동자 아저씨들의 피땀이 스며 있다고 하시지 않던》.

《그러기 이렇게 내 손으로 고쳤어…》.

고개를 떨구고 섰던 경수는 그제야 나를 한 손으로 들어 남수에게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남수는 동생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빙긋 웃으며 인차 나를 받아 들더니만

《제법 새 운동화가 됐구나, 어디 신어 봐! 거 봐라! 무엇이던지 아끼고 제 손으로 고칠 줄도 알아야 해. 이전 코'등이 두툼해서 뽈 차긴 더 좋겠구나. 그럼 우리 놀러 나가 볼가?》

하고 남수는 경수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수는 너무도 좋아서 입이 귀밑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수와 경수는 대동강 유보도로 산보하려 갔습니다.

나는 하양이하고 나란이 거닐면서 맑고 시원한 강'바람을 마음껏 들여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흥겹게 코'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고향 마을을 떠나 평양으로 오는 기차'간에서 부르던 바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희망에 찬 노래를!

(이것을 아십니까?)

심장이 하는 일은 얼마나 될가요?

심장은 1 분 동안에 60~75 회의 수축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에는 10 만 번 이상의 수축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평균 60 미리 리터의 피를 혈관에 내 보내며 1 분간에는 4 리터, 1 주야에는 약 57 톤 만한 량의 피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메틸 알콜(CH_3OH)을 만드는 법

평남 강서군 강선 중학교 화학 연구 크루쇼크에서는 화학에서 배운 나무의 건류 물질 정제법을 리용하여 톱밥을 가지고 알콜을 만들어 냈다.

알콜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목초액 만들거

제일 먼저 공기가 없는 가마 속에 톱밥을 넣고 높은 온도(450도까지)를 가하면 적갈색의 액체가 흘러 나온다.(이때 액체와 함께 가마 속에 생긴 가스도 나온다). 이 적갈색 액체를 랭각시키면 목초액이란 액체를 얻는다.(그림 1 참고) 목초액을 얻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마의 온도를 항상 규정된 온도 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처음 온도인 100~200도C에서 톱밥의 건조 과정이 일어나는 데 이때 톱밥 속에 있던 초산과 물, 그리고 테레틴유가 나온다. 계속하여 200~280도로 온도를 높이면 또다시 톱밥 속에서는 타루(솔타)가 흘러 내린다. 계속하여 열을 280~380도까지 가하면 나머지 초산과 알콜 기타 가스들이 나온다. 이렇게 400~450도까지 열을 가하면 모든 반응이 다끝난다(온도를 그 이상 높이면 제품의 질이 낮아진다). 이와 같이 얻은 액체가 목초액인 것이다. 이 목초액 속에는 초산 성분이 많으며 알콜 성분도 있다.

이제 여기서 초산과 알콜을 갈아 내면 된다.

(2) 알콜 만들기

알콜과 초산을 갈라내기 위하여서는 목초액을 내산성 용기(산이 작용하지 않는 그릇 례를 들면 도자기 유리 그릇)에 넣고 중화 반응을 시킨다. 목초액 속에 있는 초산분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소석회나 탄산소다 등을 넣는다.(비률은 목초액 100g에 소석회 50g) 이때 목초액 속에 있는 초산은 소석회와 반응하여 초산 칼슘과 물이 생긴다. 만약 탄산소다로 중화시킬 때는 초산소다와 탄산가스가 생긴다. 이와 같은 반응을 2~3 시간 시키면 초산칼슘이나 초산소다는 침전되고 우에는 황색의 맑은 액체가 뜬다.

그 맑은 액체를 다른 그릇에 갈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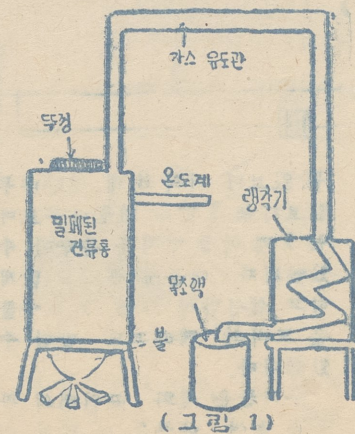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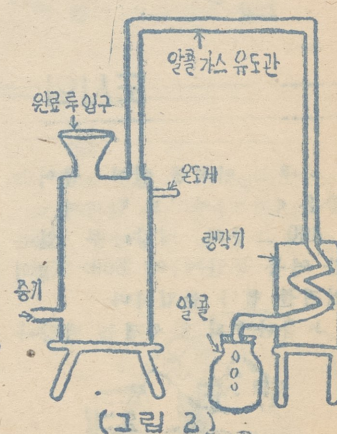
다음에는 갈라 낸 맑은 황색 액체를 려과기에 받아가지고 다시 액체 100 g에 소석회 10 g 정도를 섞어 이기면 아직도 남아 있던 초산이 석회와 반응하여 완전히 가라앉고 중성 액체로 된다. 이와 같이 만든 액체를 다시 증류기에 넣고 증류하면 알콜이 나온다.

증류법은 증류가마(그림 2)에 중성 액체를 넣고 78도의 열을 가하면 알콜이 나온다.

이와 같이 증류법을 여러 번 실시할수록 알콜의 농도는 높아진다.

목초액 제조 공정 (그림 1)

증류법 (그림 2)

이 것 을 아십니까?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가요?

어떠한 물체에 압력이나 힘을 주면 거기에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들은 반작용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새가 하늘을 날게 되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도 세상의 모든 물체와 같이 지구의 인력을 받습니다.

새가 나래를 아래로 펄덕여 공기를 치면 공기는 반작용으로 새의 나래를 우로 밀어 주게 됩니다. 이 반작용의 힘이 새에 대한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게 할 때 새는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비행기, 로케트도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변할 수 있을가요?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면 동무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체의 무게는 확실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대한 지구의 인력(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하여 생기는데, 한 물체에 대한 지구의 인력은 그물체가 지구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례를 들면 1 Kg의 쇠'덩이를 땅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약 6,400 Km이다)만큼의 높이에 올린다면 이 쇠가 받는 지구의 인력은 4분의 3으로 줄어 들고 그의 무게는 0.25 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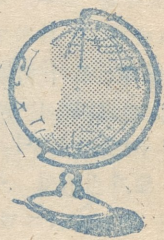
적도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량극에 있을 때 그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량극의 반경은 적도의 반경보다 22 Km 적기 때문입니다. 즉 반경이 적을수록 인력은 크고 반경이 클수록 인력은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시의 폐

나무는 먼지를 빨아 들이는 좋은 《기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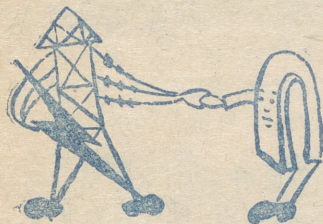
400 그루의 백양나무 잎은 한 여름 동안에 약 300 Kg의 먼지를 빨아 들입니다.

느릅나무의 잎사귀는 백양나무 잎보다 거의 6 배, 정향나무 잎보다는 3 배, 단풍나무보다는 2 배 이상 먼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기를 맑게 하고 선선하게 하는 가로수들은 도시의 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록화 근위대의 활동을 높여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잘 가꿉시다.

(실험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색 만들기

몇 가지 안되는 색으로 그것을 잘 섞으면 여러 가지 색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색+적색=오렌지색
자색+적색=자주색
청색+적색=자색
록색+적색=갈색
갈색+적색=홍갈색
회색+적색=암적색
청색+황색=록색
록색+황색=황록색
갈색+황색=황갈색
황색+록색=선명한 록색
자색+록색=록갈색
청색+록색=청록색
회색+록색=회록색
자색+청색=암갈색(또는 흑갈색)
회색+청색=회청색
회색+갈색=갈색
회색+자색=회자색
갈색+자색=암갈색

마른 나무와 고무에는 왜 전기가 흐르지 못 할가요?

여러 가지 물체 중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도 있고 약하게 통하는 물체도 있으며 전기가 아주 통하지 않는 물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이나 철과 같은 물체에는 전기가 잘 통하고 마른 나무와 고무 같은 물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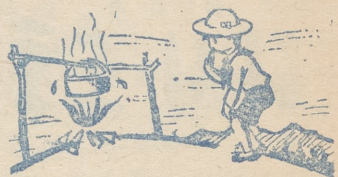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여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핵 주위를 전자라고 부르는 매우 작은 알맹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들은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들 가운데는 그 물체에 어떤 힘을 주었을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 움직이는 전자들을 자유 전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자유 전자들의 움직임을 우리들은 전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체에 따라 자유 전자들이 많은 것도 있고 또는 적거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동이나 철과 같은 물체에는 자유 전자들이 많으나 나무, 고무와 같은 물체들에는 자유 전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무, 고무 등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는 물이 100도가 되기전 에 끓는다

물은 표준 기압(수은주 760 mm)에서 100 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 가면 물은 100 도가 되기 전에 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물이 끓는 데는 기압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압이 표준 기압(수은주760 mm)보다 낮을 때는 물은 100 도가 되기 전에 끓고 대기압이 기준보다 높을 때는 100도가 지나서야 끓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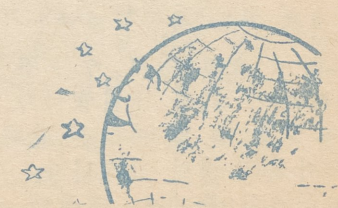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 가면 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때문에 높은 산에서는 물은 100 도가 되기 전에 끓게 됩니다.

례를 들면 백두산의 제일 높은 곳에서 물은 90 도에서 벌써 끓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열

1 분간에 1 평방 메터의 지구 표면에는 한 고뿌의 물을 끓일 만한 태양 열이 쏟아집니다.

1 초 동안에 한 정보의 지구 표면에는 1만 킬로 왓트의 모터를 돌릴만한 량의 태양 열이 쪼이는 것입니다.

—옛'이야기—

톨밤이 다시 도토리로

백 준 선

옛날 나라에 란리가 일어나서 왕은 두메 산'골로 피난을 가게 되였습니다.

서울 궁전 안에서 세력 다툼만 일삼던 왕과 그 신하들은 황황히 길을 다우쳤습니다. 서울을 떠난지 며칠만에 어떤 긴 고개 하나를 넘게 되였는데 그 고개는 젊은 사람들도 세 시간은 걸려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철이라 날씨는 무더워지고 거기다 벌써 길 량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날도 신선한 아침'결에 길을 많이 걷자고 일찍 떠나긴 하였지만 며칠을 계속하는 《량반》들의 걸음걸이라 다리가 잘 말을 듣지 않아 반나절이 잘 걸려서야 고개를 겨우 넘어 어느 마을 가까이에 다달았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에 올랐으나 아직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었습니다. 일행은 누구나 다 허기'증이 나서 배'속에서는 참새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가까이 와서 숲속 그늘 아래에 왕이 탄 가마를 멈추고 풍을 친 그들 일행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 겸 점심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호종'군(왕의 가마를 모시고 가는 사람) 몇몇은 조그만 풍을 따로 쳐 놓고 림시 수라'간(왕의 음식을 차리는 부엌)을 꾸렸습니다.

일행 중 몇 사람은 쌀과 고기를 구하려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흉년이 들기도 했지만 원체 빈한한 산'골 마을이라 입쌀과 고기는커녕 해'보리 쌀도 몇 되박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낟알을 구하려 마을로 내려 간 신하들은 좀처럼 돌아 올 줄을 몰랐습니다.

가마을 타고 온 왕도 허기'증이 나서 참기 어려웠는데 부담말을 몰거나 짐을 지고 따르던 신하들이야 더 말해 무얼합니까!

그늘 아래의 풍 속에서 왕은 허기'증을 잊으려고 누웠다 앉았다 안절부절을 못 하면서 수라'간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곁에서 부채질를 해 주는 내시(왕의 곁에서 시중 드는 사람)만 없었던들 그는 《엑기 망할 놈들 밥이건 죽이건 빨리 차려 올게지!》 하고 혼자'소리로 신하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암만 기다려도 수라'상은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풍 안에서 기다리다 못해 바깥 소나무 그늘로 나가 거닐었습니다.

이 때 왕이 귀신처럼 생겼나 사람처럼 생겼나 어디 구경하자고 먼발치에 모여섰던 그 마을 어린 것들이 주춤주춤 왕의 곁으로 다가 들기 시작했지요.

란리를 피해 떠나는 처량한 생각을 뿌리치려고 앞을 멀리 바라다 보던 왕은 무엇을 맛 있게 먹고 있는 코흘리게들 한테 눈'길이 가게 되였지요.

《저 녀석들 먹는 게 뭐지?》.

왕의 등 뒤에서 부채질을 해 주고 섰던 내시는 왕이 묻는 말에 얼른 코흘리게들 앞에 뛰여 나가 물어 보고 돌아 와서

《도토리인 줄로 아뢰오》.

하였습니다.

《그게 맛이 어떤가?》.

《시골 상놈의 자식들이나 먹는…》

사실 내시는 그 이름도 처음 듣거니와 그 맛을 알 수가 없어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거 한 알 먹어 보세》.

왕의 말이 떨어지자 내시는 곧 아이들에게로 달려 내려 가 그 중 나이 많아 보이는 여라문 살짜리 하나를 붙잡고 도토리를 몇 알 재로 따 오게 했습니다.

내시는 아이한테서 도토리를 받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왕은 껍질을 벗겨 주겠다는 내시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손수 걸껍질과 속껍질을 벗겨 네댓 알을 련거퍼 먹고는 입술을 혀 끝으로 씻으며 말하기를

《어 이게 량반이군! 맛이 별맛이거든》.

아닌게 아니라 왕은 더 먹고 싶었지만 왕의 체면에 많이 먹을 수도 없어 억지로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지?》.

왕은 다시 한번 입맛을 다시면서 묻는 것이였습니다.

《도토리라 하옵니다》 하고 내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도토리라? 이렇게 맛 있는 걸? 이 맛인즉 으뜸이고 이 모양인즉 밤 같아, 하니 톨밤이라 하여라》.

그 후 란리가 끝나고 왕은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바로 이 해 여름철이였습니다.

왕은 피난을 다니노라 몸이 쇠약해져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계속되는 조정안 벼슬아치들의 당파 싸움에 골치가 아파서인지 또는 이 여름부터 여름을 타서 그런지 어쨌든 요즘에 와서는 음식이 잘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음식을 다 먹어 보았으나 역시 입맛이 추서지 않았답니다.

왕은 신통하게 맛 있을 음식이 없을가 하고 늘 생각해 오던 차에 어느 날은 문득 작년 이맘 때 피난 갔다 먹은 톨밤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지요. 《옳지, 그 놈의 톨밤이 별맛이든가봐… 톨밤을 좀 먹어 봤으면…》 하고 내시에게 일렀습니다.

내시는 그 말을 받아 가지고 급히 수라'간에 달려 나가 알렸습니다.

그 뒤 한 시간 가량 지나자 곧 톨밤이 수라'간에 들어 왔지요.

수라'간에서는 서울 북악산에서 따 온 톨밤이 시들 새라 맛이 덜 새라 당장 샘물에 두세 번 씻고 다음에는 손으로 밑에 붙은 당즉을 따고 걸껍질은 은장도칼로 벗겨서 여라문 알 옥쟁반에 담아 은수저까지 받쳐 왕 앞에 올리였습니다. 왕은 톨밤이 들어 오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노르스럼하게 물이 오른 도토리, 아니 《톨밤》은 참말 먹음직하였지요.

왕은 《톨밤》 상을 턱 밑에 바싹 당겨 놓고 순갈로 두어 알 한꺼번에 떠서 입에 넣는 것이였습니다. 빠작빠작 씹는 소리가 옆에서 부채질해 주던 내시의 귀에도 탐스럽게 들리는 순간

《에익! 퉤, 이게?…》 하고 왕은 벌레라도 씹은듯 곁에 있는 타구에다 입을 내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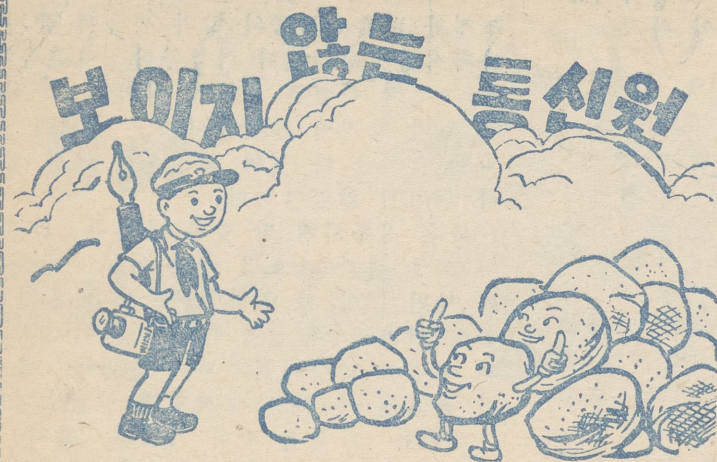
두 내시 중 하나는 왕을 부추기고 하나는 타구를 바쳐 주었지요.

《어, 이놈 상놈이로군, 이게 정녕 톨밤이렸다?》 왕은 씁쓸하고 떱떱한 날 도토리 맛을 씻어 버리려고 랭수를 청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녕 톨밤인 줄로 아뢰오》.

《에익, 이걸 톨밤이라 하지 말고 다시 도토리라 불러라, 허긴 상놈이나 먹을 게로다》.

이 날 저녁 수라'간에서는 모두들 둘러서서 도토리가 《톨밤》이 되였다가 다시 도토리로 되돌아 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신원

☆ 돌'더미들이 하는 말

내가 순안선 뻐스를 타고 첫 정류소에 도착 하였을 때입니다.

신작로 왼편에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학교가 얼른 눈에 띄우고 그 오른 쪽에는 농촌 문화 주택이 줄지어 일어서고 있었어요. 벌써 새 집들이를 한 조합원들과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이 곳 소년단원들을 찾아 보고 싶은 마음이 나서 얼른 뻐스에서 내렸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년단원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오질 않겠어요. 바로 학교 뒤'산에서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무엇인가 흥겹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로 곳을 막 달려 갔어요.

벌써 산'더미 같은 돌 무테기가 여기 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통신원 동무! 통신원 동무 이리로 오세요!》 나는 제 일 큰 돌무테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 무테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과 자갈들은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 참가하게 된 자기들의 기쁨과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어제까지도 일떠서는 문화 주택 마을을 내려다 보며 부러워 하기만 하였어요. 더욱히 농촌 건설대 아저씨들이 뜨락또르에다 돌과 자갈을 가득 싣고 와서 부리우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불이라도 질러 놓은 것 같이 달아 오르군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특한 소년단원들이 소년단 기'발을 휘날리며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 왔어요. 사방에 흩어진 소년단원들은 삽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년단원들이 아니였더라면 우리는 아직 여기 저기 흩어져 쓸모 없는 돌로 밖에는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10 만 동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 참가하는 영예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소년단원들의 덕분이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찌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꼭 전국 소년단원들에게 전해 주세요.

특히 모범 분단(3분단)의 신 인자, 김 인호 동무들이 누구보다도 열성이였어요.》

나는 앞으로 문화 주택 마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수첩에 평남도 순안군 대양 중학교라는 학교 이름과 신 인자, 김 인호 동무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 새 옷감으로 되는 자랑

내가 온천군 직물 공장에 찾아 갔을 때입니다. 《통신원 동무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2억 5000 만 m 직물 고지 점령에 도와 나선 소년단원들의 덕분에 이 공장에 온 가위'밥, 고포, 실'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새 옷감으로 되였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소년단원들이 가져다 주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 집에서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들에게 한 오리의 실과 한 쪼각의 가위'밥도 모아 직물 고지 점령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북반부 전체 인민이 한 사람이 1g씩만 모아도 얼른 10 t이라는 큰 수'자가 된다고 알려 드렸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새 옷감으로 되여 나온 것이예요.

특히 온천 중학교 1 분단 5 반에 있는 오 용하 동무는 200 여 kg의 우리 동무들을 모아 왔답니다.

지금 이곳 소년단원 동무들은 오 용하 동무의 모범을 따라 모두다 한 사람 같이 나서고 있어요.

그리하여 벌써 학교적으로 1t 300 여 kg의 고포를 모았어요.

× ×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소년단원들이 금년도 6개 고지 점령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도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다시 만납시다.

례절있게 생활하자

리 창기

△ 갑이 먼저 나와 기다리는데 을이 저고리 단추를 다 헤치고 나온다.

갑 (나오는 을을 보고) 얘 어서 이리 와!
을 왜 그러니? (가까이온다)
갑 (혼자'소리로) 단단히 버릇을 떼 놓아야겠는데……
을 누굴?
갑 널말이야
을 나를
갑 그래
을 내가 뭐 어쨌다구?
갑 례절을 안 지키니 말이지
을 뭐? 내가 례절을 안 지킨다구? 난 아침마다 동네 어른들 만나면 (경례 해 보이며) 《안녕하십니까?》 하구 꼭꼭 인사를 하는데.
갑 아침 인사나 하면 례절을 다 지키는건줄 아니?
을 그럼?
갑 너 옷차림이 그게 뭐냐 저고리 단추를 다 풀어 헤치구……
을 이저야 더워서 그러지 머
갑 그게 바루 례의 도덕이 없다는 표현이야
을 뭐? 저고리 단추 풀어 놓은 것이 례절이 없는거라구?
갑 그렇잖구, 옷 차림은 례절의 첫째야
을 음 그렇다면 채워야지! (단추를 채우는데 바로 채우지 않아서 저고리가 찌그러진다) 자 됐지?
갑 어디 됐나 (무대 한 쪽을 가리기며) 저 쪽으루 걸어 봐
을 (갑이 가리킨 쪽으로 걸어 갔다 다시 돌아온다)
갑 꼴 좋다…그 모양을 하구 사람들 앞에 나다녀?
을 왜? (의심해서 자기 몸을 살펴 보고) 야! 단추를 삐뚜루 채웠구나!
갑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옷차림을 살피구 례절있게 단정히해야 한다구 선생님한테서 얘길 듣구두 그래
을 헤헤헤… 모르구 그랜걸 뭐…
갑 너처럼 그렇게 어른들에게 《안녕하셨습니까》 하구 허리나 한번 굽신하군 례절을 다 지킨 줄 알구, 말이나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는 애들이 아직두 있어
을 그게 어떤 애들이냐?
갑 우리반에 그런 애가 있는데 그애는 분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뭐라구 토론하는지 아니
을 뭐라구 토론하니?
갑 《동무들 우리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뿐만아니라 례절에서도 모범이 됩시다》
을 아주!
갑 이렇게 토론은 하구 실지만 행동에 들어가선 례의 도덕에 어긋나구 《소년단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거든
을 건 말공부쟁인게로구나
갑 이만 저만한 말공부쟁이가 아니야 동무들을 부를땐 뭐라구 부르는지 아니?
을 뭐라구 부르니?
갑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잉크병을 어쨌다구 그래? 저 새끼가…… 너 죽어 보겠니?》
을 아니 동무들을 부를 땐 창식 동무, 춘삼 동무하구 불러야 하는 건데 《이새끼 저 새끼 그런단 말이야?
갑 (을을 보고) 《그랬다 그랬으면 어쩔데야? (발길로 을의 궁둥이를 툭 차며) 이 새끼》
을 아얏! 너 왜 날 차구 구러니?

갑　하하하… 말공부쟁이가 이렇게 　교실에서 남의 학습에 방해되게 떠든단 말이야.
을　그앤 정말 한심하구나. 교실에선 항상 조용히 공부하지 않구 그게 무슨 짓이람
갑　학교에서만 그런게 아니구 저희 집에 가선 또 어쩌는지 아니?
을　집에선 어쩐다던?
갑　《어만 나 배고파 빨리 밥달라 빨리!》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반 말을 하지
을　아니 《어머님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하구 인사 하는게 아니라 저래라 반말 해?
갑　그건 보통이야
을　그건 또 보통이야?
갑　밥 먹는 덴 또 언제나 선코스지
을　밥 먹는 덴 선코스라니?
갑　끼 때 밥상이 들이 오면 어른들이 　수저를 드시기두 전에 제가 먼저 (밥을 　게걸스럽게 퍼먹는 시늉을 하며) 《할아반 밥 먹으라마 아버지 밥 안 먹간?》
을　(어이가 없다는 듯 원 참!…… 그게 　무슨 말 본때람
갑　그 뿐이아니야 어른들이 앉아 말씀 하시는데두 옆에 떡 들어 누어서 말 참견 　하구 있는건 어쩌구.
을　저런 어른들이 앉아 말씀하실 땐 　한쪽에 소곳이 앉아서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것이 옳지 버릇 없이 들어 누어서 어른들 말 참견을 해?
갑　그앤 또 심부름 보내면 《함흥차사》 지
을　《함흥차사?》
갑　심부름 보내면 돌아 올 줄 모른단 말이야

을　왜?
갑　한번은 말야 저희 어머니가 급한 일루 아버지네 직장에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겠니
을　그런데
갑　그런데 해낮에 심부름 간 애가 저녁 늦도록 영 돌아 오질 않더래
을　웬 일루?
갑　글쎄 심부름을 가다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뽈차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을 보냈지 뭐
을　아니 심부름가던 애가?! 한심하구나
갑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아니?
을　어떤 일이 벌어졌니?
갑　정신없이 뽈차는걸 구경하다가 뽈이 날아와 이마를 《빵》하고 갈기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지
을　《야! 뭘하고 섰어!》하고 그놈의 뽈이 　와 갈겼구나
갑　그래 《앗! 내가 정신이 나갔대구나》하고 짜장—하고 달렸지?
을　오 바쁘니까 뻐스 타구 갈라구?
갑　뻐스 정류소에 가니까 마침 뻐스가 와 있거던
　　그래 꼬리 잡아 줄서 있다간 못 탈것 같으니까 슬쩍 새치길해서 선참 올라 탔지
을　뭐? 새치기를 해?
갑　그뿐인줄 아니, 급히 서둘다 보니 남의 발잔등을 밟지 않았겠니, 그리고두 시침을 뻑 뗐지머
을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갑　어디 빈자리 없나하구 앉을자리 부터 찾다 보니 언제 그런 인살차릴 겨를이 있었겠나
을　그래 자리가 있었나?
갑　그럼 척 앉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올랐단말야 그러니까 쓱 모르는 척하구 창밖만 내다 보았지 뭐
을　야! 정말 한심하구나
갑　직장에 가서 저희 아버질 찾으니까 　벌써 퇴근하구 안계셨지 머
을　심부름 참 잘했구나 집에서 어머니는 애가 탔겠구나
갑　어머니 앞에 면목이 없었지 뭐
을　야! 난 오늘 많은걸 배웠다 (무안한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며)
갑　너두 그런 일이 있은게로구나.
을　나두 아직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키자면 멀었어
갑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소년단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례절의 초보거던…… 우리들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하게 자라려면 어려서 　부터 착하구 례절있게 생활해야 돼!
을　네 말이 옳다! 우리 모두 공화국의 　소년단원답게 례절있게 생활하자
　　(갑 을 악수)

우화

가짜 벼포기

우 봉준

설레는 벼포기 속에
벼포기와 같은 몸집
벼포기와 같은 빛갈
허나 벼포기 아닌 《벼포기》 하나.

벼포기로 가장한 가짜 《벼포기》
모두 들으라 말 하기를
《우리 형제들은 말야
모두모두 단결해야 해.
서로 따돌리는 일 있어선 안 되지
서로 믿지 못하는 일 있어선 안 되지》

또 이렇게도 말했네
《우리 동무들끼리는 말야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해
제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제 몫도 나누어 줄줄 알아야 해》

이렇게 푼 거름을 꿀꺽꿀꺽
이렇게 얼렁뚱땅 《벼포기》는
논판에 푼 거름을 꿀꺽꿀꺽
벼에게 차례진 소중한 《보약》
남몰래 게걸스레 꿀꺽꿀꺽

《벼포기》는 얼기설기 뿌리만 뻗고
뻣뻣한 몸집, 키만 껑청 자라서
왁살스런 손아귀 마구 휘둘렀네
벼포기를 못 펴게

벼 이삭이 활짝 패일 무렵
저도 패는 척 《벼포기》는
조알 같은 이삭 겨우 내밀고
그래도 여보란듯 거드럭거렸네
《날 본 받아야 해
난 내 몫을 고시라니
임자들께 바친 거야
그래서 내 이삭은 이렇게 작아진 거야》

그제사 웅성대는 벼포기들
《이제 보니 네놈은 돌피였구나》
《어쩐지 우리 맘씨와 다르다 했더니》
《그래서 수다를 떨었구나
도적놈 심뽀를 감출려고》
《좋은 교훈 찾았구나
제 편과 원쑤를 가려 내는데
겉만 보고선 안 된다는 걸》

체육에서의 세계기록들

다음에 최근까지의 세계 기록들을 소개 합니다.

△룩상		(남자)	(녀자)
100 m	달리기	10초	11초 3,
200 m	달리기	20초 5,	22초 9,
400 m	달리기	44초 9,	52초01,
800 m	달리기	1분45초 2,	2분 1 초 2,
1500 m	달리기	3분35초 6,	
80 m	장애물 달리기		10초 5,
110 m	〃	13초 2,	
200 m	〃	22초 5,	
400 m	〃	49초 2,	
마라손	(42 km195)	2 시간15분16초,	
400 m	계주	39초 1,	44초 3,
1600 m	〃	3분02초 2,	
주고도		2 m 26cm,	1 m 91cm,
주광도		8 m 28cm,	6 m 53cm,
삼단도		17m 3 cm,	
봉고도		4 m 83 cm	
원반	던지기	61m 64cm,	58m 98cm,
포환	던지기	20m 6 cm,	18m 55cm,
창		86m 74cm,	59m 55cm,

△빙상,	(남자)	(녀자)
500 m	36초 6,	45초 6,
1000m		1분33초 4,
1500m	2분 6 초 8,	2분25초 5,
3000m		5분 9 초 2,
5000m	7분45초 6,	
10000m	15분45초 6,	

(작문)

장구재'집 할아버지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내가 조기체조하려 나가니 아직 동무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이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 풀이라도 뜯으려고 나는 큰 길로 나갔습니다.

큰 길에 가보니 어제만해도 수두룩하던 풀을 누가 몽땅 뽑아 놓지 않았겠어요.

(혹시 동무들이?)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때 맞은편 길로 장구재'집 할아버지가 큼직한 삼태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풀을 뽑은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한번 꼭 물어보리라고 마음먹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네 집을 장구재'집이라고 하나요?》

《거야 우리가 장구재라는 두메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이지》하시면서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왜정때 할아버지네는 여기서 30리 쯤 떨어진 장구재라는 곳에서 살았답니다.

좌우에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깊은 골짜기랍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네는 해마다 부대기를 일쿠면서 살았답니다. 얼마 되지않는 한해 농사는 왜놈들에게 다 빼았기고 멀간 죽물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답니다. 겨울이면 게딱지만한 오막살이에서 온 식구가 헌 베옷이 아니면 토스래 옷을 입고 오돌오돌 떨었다지 않아요.

그렇던 할아버지네는 지금 큰 기와집까지 쓰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네는 해마다 알곡과 현금을 많이 분배 받아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살고 계시지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조합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손자들은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할아버지는 몹씨 늙으셨지만 참 정정하십니다. 잠시도 쉬지않고 일하시지요.

《할아버지 지금 년세가 얼마이시나요?》하고 나는 어른처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띄우시고 《올해에 여든세살이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이 그럼 환갑이 지나신지도 오래셨구만요!》하고 나는 약간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세월에 백살인들 못 살겠니. 수상님께서는 륙십이 아니라 90이 환갑이라 하시지 않았니. 나는 100살을 넘겨 살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몇 번 더 참가할테다. 이번 선거엔 맨 선참으로 선거장에 나가서 투표하겠다》하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김 일성 원수님과 인민 주권에 대한 끝 없는 고마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 아침 동무들이 다 모인 다음 나는 장구재'집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무들은 누구나 선거날에 할아버지를 제일 선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장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습니다.

함남도 수동군 판평 중학교 3학년 김 춘자

(동요)

까만빛 안경

두 눈 번쩍 빛나는
아버지 안경
붉은 쇠'물 꿰 보는
까만빛 안경

아버지는 언제나
로 앞에서 번쩍
출강 시간 주린 자랑
많고 많은 안경

번쩍 보고 출강 신호
종소리 울리면
120만 톤 붉은 쇠'물
춤 추며 흘러요.

나도요 어서 커서
아버지처럼
까만 안경 번쩍 끼는
용해공 될래요.

평남도 강서군
강선 고등 금속 공업 학교
기술반 1 학년
김 학평

(작문)

나의 일기장에서

8월 2일

송도원으로! 송도원으로!

기차는 쾌속도로 달린다.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신성천, 양덕, 운곡, 고원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과 마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야영소로 간다.

오락회가 벌어졌다. 아꼬데온 반주에 맞춰 춤추고 노래 부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년단원들이다.

누구나 바요린을 켤 줄 알고, 피리를 불 줄 알고 아꼬데온을 탈 줄 아는 분단 동무들은 그 어디서나 명랑하고 씩씩하다. 《꼬마 차장》이 된 김 순애 동무는 렬차원의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앞날의 기사로, 작가로, 예술가로 키워주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참 좋다!

8월 5일

야영소의 아침. 바다 멀리 수평선을 물들이며 붉은 해'님이 솟아 올랐다.

나는 욱어진 소나무 숲속에 앉아 해돋이를 구경한다. 그네를 타고, 널을 뛰는 아이들도 있다. 아침 이슬을 먹음은 해당화가 방긋방긋 웃으며 우리를 반긴다.

저 멀리 명사십리와 호도 반도 쪽에서는 갈매기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배'길을 알린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한품에 껴안은 백사장! 밀려왔다 밀려 가며 우리를 손짓하는 파도 소리는 얼마나 좋은가!

이곳이 바로 조선의 자랑 세계의 명승 송도원인 것이다. 나는 백사장 모래'불 우에 딩굴며 마음 속으로 외운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름의 한 때를 마음껏 즐기게 해 주신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8월 8일

오늘은 야영 계획에 의하여 문천군 탑촌리를 견학했다.

배를 탄 우리는 거센 물'결을 가르며 경쾌히 달리였다.

동트는 조국의 아침 바다 우에서 해돋이를 구경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기떼를 찾아 훨훨 나르는 갈매기에게 야영모를 벗어 흔드는 아이들의 온 몸에는 곱게곱게 아침 노을이 물들었다. 1 시간 30 분만에 탑촌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먼저 수산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아저씨에게서 탑촌리의 옛날과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왜정 때 이곳 인민들은 어떻게 살아 왔던가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 쳐도 태풍이 불어도 어부들은 조그만한 목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부두에 나가 아버지들을 기다렸다. 살아 돌아오면 천만 다행이였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잡아 온 고기는 왜놈 선주가 다 빼앗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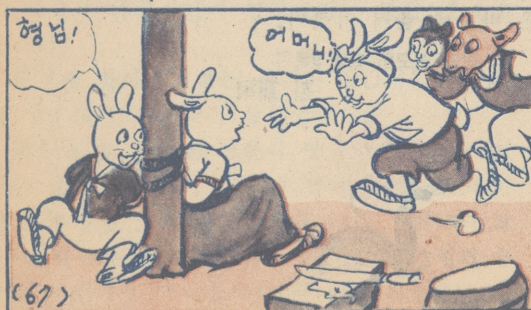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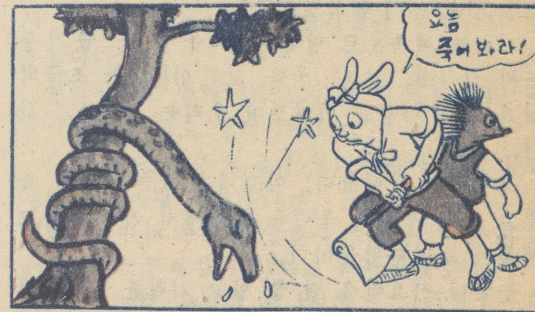
쪽배 한 채 없어 헐벗고 굶주리던 이곳 인민들이 오늘은 기계'배를 씽씽 몰고 바다로!바다로!나간다.

유쾌한 하루를 보낸 우리는 다시 배를 탔다. 80만 톤 만선기 펄펄 휘날리며 아침에 나갔던 배가 들어 오고 있었다. 풍어의 노래'소리 온 바다에 울려 퍼졌다.

평양 외국어 학원 9분단
최 재복

(련재 만화)

흰색갈우 깡충이

(5회)

☆ 손'가락 계산기

구구표를 외우는데 9와 다른 수'자를 승해 주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써서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

량 손을 책상 우에 놓고 그림과 같이 손'가락에 번호를 매기고 다음 속으로 외워 두시오.

다음 어느 한 수를 9와 승한다고 합시다. 손을 책상에서 떼지 말고 주어진 승수와 같은 번호를 가진 손'가락을 우로 쳐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의 왼 쪽에 있는 손'가락들의 수는 적의 첫 자리 수'자이며 오른 쪽에 남아 있는 손'가락들의 수는 적의 두 번째 자리 수'자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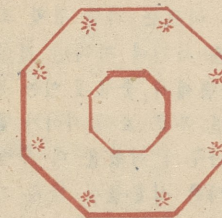
7에다 9를 승한다고 합시다.

손을 책상에 놓고 이 때 승수 7과 같은 번호를 가진 일곱 번째 손'가락을 쳐듭니다.(그림) 보십시오! 쳐든 손'가락의 왼 쪽에는 여섯 개의 손'가락이 있으며 오른 쪽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7에다 9를 승한 적은 63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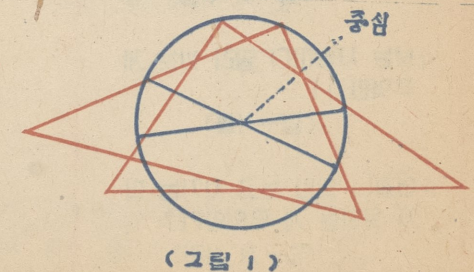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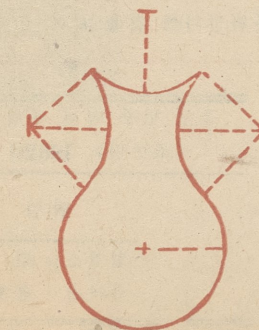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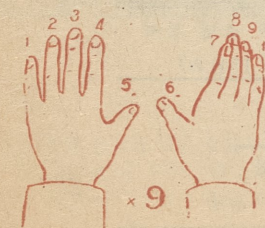
☆ 모양 바꾸기

엷은 마분지에 다음의 그림 정8각형을 옮겨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정8각형 되게 구멍을 만드시오.

그것을 8개의 같은 쪼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역시 8각형 구멍을 가진 8각 별을 만들어 보시요.

(해답은 다음 호에)

☆ 물'단지로 정4각형 만들기

종이에다 그림1과 같은 물'단지 모양을 옮겨 그리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 직선으로 짤라서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으로써 정4각형을 만드시오.

속담

☆가을 식은 밥이 봄 량식이다.

(넉넉하다고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일도 오래 되면 큰 것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니 결함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해도 제때 경계하라는 말)

알아 맞추기

같은 수'자로 된 어떤 두 자리 수에 99를 승해 주면 네 자리 수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결과의 세번째 수'자만을 알면 결과 (적과 피승수)를 모두 알아 낼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해답은 다음 호에)

☆원의 중심 찾기의 해답

삼각자를 원에다 갖다 댈 때 삼각자의 정점(직각을 이루고 있는 정점)이 원주상의 어느 한 점에 놓이도록 하고 직각변과 원주가 사귀는 점을 표시하여 놓는다. (그림1) 그 두 점을 연필로 련결하면 그 선분은 원의 직경으로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직경을 또 하나 긋는다. 이 때 두 직경이 사귀는 점이 원의 중심으로 된다.

(그림 1)

(유희)

고리 꿰기 놀음

1. 유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3.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종대로 선다.
4. 각 편의 1번 유희자들은 고리를 3개씩 쥐고 선다.

△

△ 유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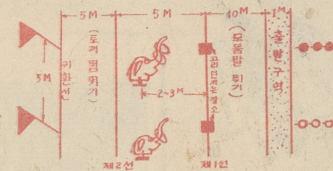
①출발 신호에 따라 각 편의 1번 유희자들은 고리를 쥐고 출발선에서부터 고리를 던지는 장소까지 모둠발 뛰기로 간다.

②고리를 던지는 장소에서 유희자들은 코끼리 코를 겨누어 고리를 던져 꿴다.

③3개의 고리를 전부 꿰면 (꿰지 못하면 꿸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제 2선까지 달려 나가 다음 귀환선까지 토끼 뜀뛰기로 달리며 귀환선을 돌아 출발선까지는 달려와 손'바닥 치기로 유희자와 교대한다.

④2번 유희자는 토끼 뜀뛰기로 제 1선까지 달려 나가며 코끼리 코에 꿰여져 있는 고리를 거두어 쥐고 2선에서 귀환선까지 모둠발로 뛰여 귀환선을 돌아 출발선까지 달려가 그 다음 3번 유희자에게 고리를 넘겨 준다.

⑤3번 유희자는 1번 유희자와 같은 방법으로, 4번 유희자는 2번 유희자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한다.

⑥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한다.

6호 현상 문제 해답

강원도 철원군 대전 중학교 림 경순 동무의 답안을 소개 합니다.

《나무는 해마다 굵어지면서 새로운 층이 생긴다. 이 년륜층에는 비교적 넓은 부분과 좁고 컴컴한 색갈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넓은 부분은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기간 생활 조건이 좋은 시기에 자라난 것이다.

년륜층에서 중심에 있는 부분이 주변 부분 보다 사이가 좁은 것은 나무가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이 많은 가운데서 자라면서 해'빛과 영양을 잘 받지 못하여 빨리 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한 쪽의 년륜층들의 사이가 넓고 정반대 되는 다른 한 쪽의 년륜층들은 사이가 좁아서 빽빽하게 되여 있는 것은 언제나 해'빛을 많이 받는 남쪽이 빨리 자라고 북쪽이 빨리 자라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때문에 우리는 이 년륜을 보고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으며 동서남북을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 있는 여러 개의 나무 그루들을 대비하여 그 밀림의 과거 력사를 알아 볼 수도 있다.》

현상 문제

다음의 그림을 연필을 떼지 말고 단번에 그려보세요.

☆6호 현상 문제 당선자

량강도 혜산시	혜명	중학교	김 성운
자강도 화평군	화평	중학교	리 형운
강원도 철원군	대전	중학교	림 경순
함남도 신포시	어항	중학교	공 길린
함북도 온성군	온성	중학교	오 현군
황북도 신평군	장암	중학교	장 확실
평양시	교구	중학교	장 호영

《소년단》 7호 1페지 ★ 숙영지로 가는 길》을 《숙영지를 찾아서》로 고칩니다.

수수 께끼

☆형의 갓은 아우가 써도 아우의 갓은 형이 못쓰는게 무엇인가?

(답—솥 뚜껑)

☆보는 사람마다 달라 뵈는 게 무엇인가?

(답—거울)

☆언제나 맛만 보고 자기는 먹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답—저'가락)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10호 (총 156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542 값 25 전 150,0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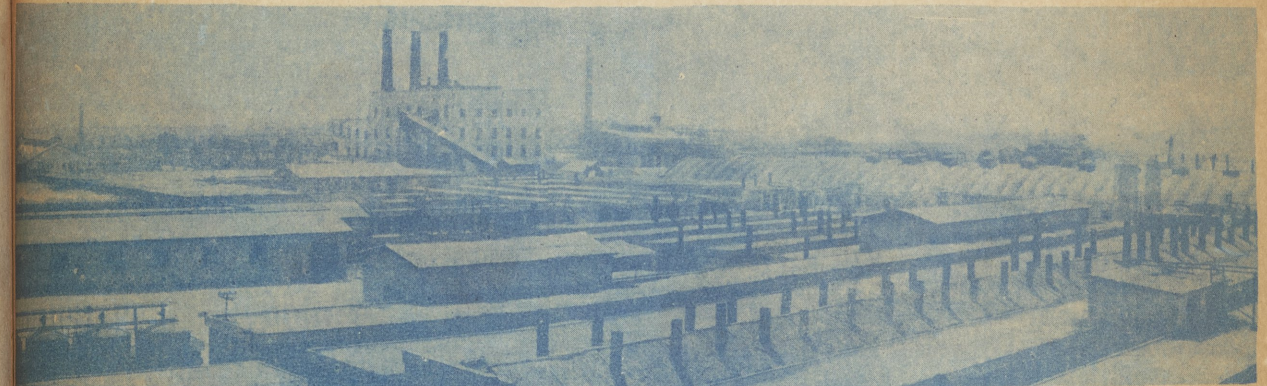
천리마로 달리는 우리 조국에서

《북방의 대 화학 섬유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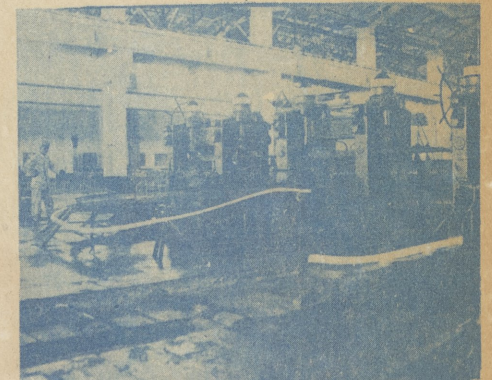
《북방의 대 화학 섬유》이며 《비단의 궁전》—청진 화학 섬유 공장! 1 년에 스프와 인견사를 3만 톤(이것으로 1억 8천만 메터의 비단천을 짤 수 있다)이나 생산하는 이웅대한 공장이 지난 9월 8일에 준공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올해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에 더 많은 비단 원료를 보내기 위해 힘 쓰고 있다.

↓

←

현대적인 평양 전선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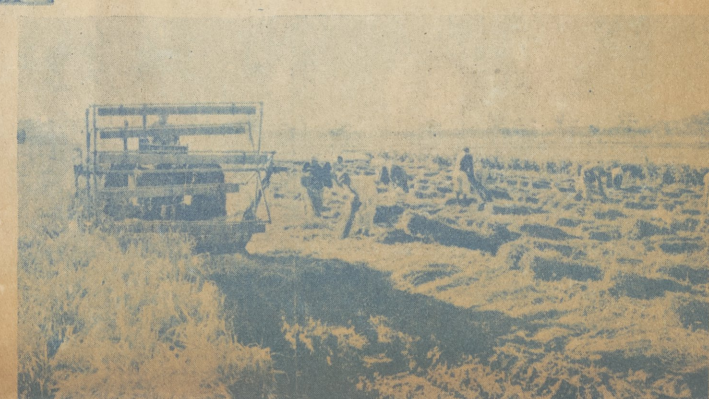
이 공장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선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전력 케블선, 통신 케블선, 고무 절연선, 에나멜동선 등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쓰이는 약 600 종의 전선들을 1년 1만 톤 이상 생산하게 된다.

↑ 우리 나라의 첫 유색 압연 기지

우리 나라의 첫 유색 압연 기지로 되는 남포제련소 유색 압연 직장 건설이 완공되였다.

여기서는 한 해 동안에 1만 2천 톤의 동 합금 압연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하여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던 여러 가지 압연 제품들인 아연판(아연 제련 직장은 이미 1957년에 준공) 동판, 동봉, 동관, 동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였다.

《천리마》호 벼 베기 기계 →

해주 련결 농기계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만들어 낸 이 《천리마》호 벼 베기 기계는 사람이 낫으로 벼를 베는데 비하여 70~80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기계이다.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에 나선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일'손을

지금 이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은 올 추수기 전으로 2천 대의 벼 베기 기계를 만들어 보내여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에 나선 농민들의 일을 헐하게 해 주기 위해 힘 쓰고 있다.

(5) 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

① 철이– 형! 이게 무슨 안개가 갑자기 끼나?
용이– 모를일인걸
고래– 허허… 놀라지들 말게 내 새끼가 물속에 들어 갔다 나오면서 내 쉬는 입김이라우…

② 철이– 저런 고래새끼가 젖을 먹네
고래– 아니 그만 먹고 이 손님들을 배 있는 곳까지 대려다 주고 오렴
새끼고래– 응

③ 철이– 새끼고래야! 넌 그렇게 몸집이 크면서도 젖을 먹어
새끼고래– 그래 인젠 배있는데까지 거이 왔니.
용이– 응 인젠 다 왔어

④ 새끼고래– 받아 두라구 어머니가 주는 룡연향이야
용이– 룡연향? 고마워 다시 만나자 철이 이건 대단한 기념품인걸!
이 고귀한 향료는 말향 고래 창자속에 있다지?

⑤ 용이– 그런데 배는 어데 있어?
철이– 저 바위 뒤에 있을게야
용이– 빨리가자

⑥ 철이– 에쿠 이게 뭐야!
용이– 이건 왕지네가 아니야?
철이– 왕지네가? 물속에도 있나 뭐?

⑦ 숭어– 바다 손님! 그건 갯지내라는 것이라우 보기엔 흉해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될 사료들이지요
철이– 형! 빨리 배있는 곳에 가보라요?